

2025 태국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총리 교체와 패통탄 신정부의 주요 정책	5
나. 관광산업 부흥 및 재정 수입 확대	7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태국의 부상	8
라. 태국의 전기차 생산 허브화 정책	9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12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12
가. 정치 환경	12
나. 경제 환경	14
다. 산업 환경	16
라. 정책·규제 환경	19
2. 시장 분석	25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25
나. 교역	27
다. 투자	31
라. 프로젝트	34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36
가. 교역	36
나. 투자	40
다. 협력 유망 분야	43
III. 진출전략	47
1. PEST 분석	47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48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49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61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66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68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9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5년 태국 경제는 2.8~3.1% 성장 전망

• (호조 요인) 관광 호조 및 정부 경기 부양책, 공공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 '24년 1~8월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2,350만 명), 관광수익 약 329억 달러 창출

* '24년 태국 경제 전망: 태국 중앙은행(2.6%), 세계은행(2.4%), IMF(2.9%)

* '25년 태국 경제 전망: 태국 중앙은행(3.0%), 세계은행(2.8%), IMF(3.1%)

• (부진 요인) 높은 가계부채 비율 및 대출 규모 축소에 따른 가계 구매력 위축, 태국 정부의 통화 긴축정책, 외환 변동성 등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 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0.9%('24년 1분기 기준)로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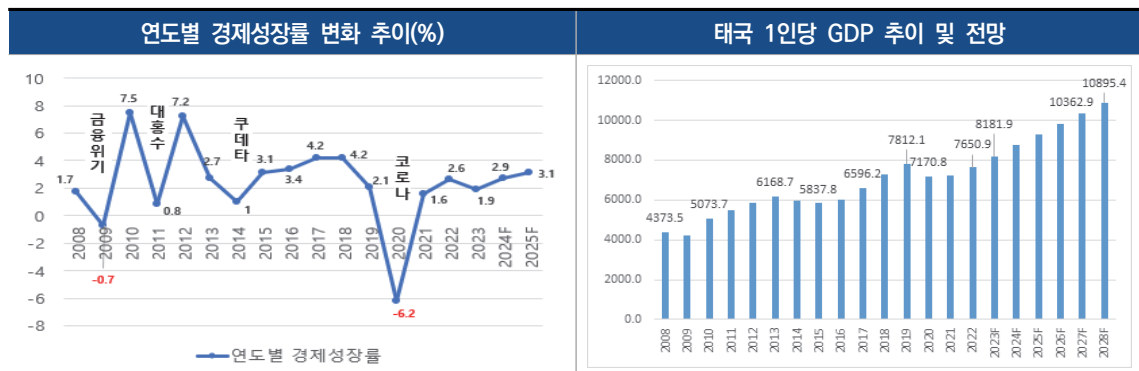
* 태국 정부·시중은행은 가계 대출 줄이기에 나섰으며, 구매력 감소로 건설·자동차 산업 침체('24년 1분기 주택 213,429채 미분양, '24년 7월 자동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

* 태국 기준금리 '24년 8월 기준 2.5%로 5회 연속 동결, '25년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위험 요인) 엘니뇨·가뭄·홍수 등 기후 요인과 전 세계적 식량 위기는 대내외적 위험 요소

* 태국 '11년 대홍수로 680명 사망하고 1조 4,300억 바트(465억 달러, GDP 12.6% 해당) 손실 발생했으며, '24년 치앙라이 홍수로 12명 사망하고 5억 바트(1.5천만 달러) 피해 발생

* 태국은 세계에서 홍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10개 국가 중 하나이며, 기후 변화로 인해 '80년까지 벼 수확량 10% 감소, 작물 생산성 2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아시아개발은행)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기관별 2024년 태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YoY%)

기관명	발표일	전망	
		2024년	2025년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	'24.8.	2.3~2.8	-
태국 중앙은행	'24.6.	2.6	3.0
태국 재정정책실	'24.7.	2.7	-
세계은행	'24.7.	2.4	2.8
국제통화기금	'24.7.	2.9	3.1
카시콘 리서치	'24.8.	2.6	-
끄룽스리 리서치	'24.9.	2.4	-

자료: 각 기관별 홈페이지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I)	백만 명	69.4	69.6	69.8	70.0	70.1	70.2	70.3	70.3
명목GDP(I)	십억 달러	506.8	544.0	500.5	506.3	495.6	514.9	548.9	573.4
1인당 명목GDP(I)	달러	7,298.9	7,812.9	7,169.9	7,237.3	7,072.8	7,337.2	7,811.6	8,153.0
실질성장률(I)	%	4.2	2.1	-6.2	1.6	2.6	1.9	2.9	3.1
실업률(T)	%	1.1	1.0	1.7	1.9	1.3	1.0	1.1	1.5
소비자물가상승률(E)	%	1.1	0.7	-0.8	1.2	6.1	1.2	0.9	2.8
재정수지(GDP대비)(E)	%	-2.5	-1.9	-6.8	-5.5	-2.7	-3.0	-3.7	-4.7
총수출(E)	십억 달러	253.0	246.3	231.6	272.0	287.4	280.2	300.2	324.8
총수입(E)	"	248.2	236.3	206.2	266.9	301.0	263.2	285.6	309.0
무역수지(E)	"	4.8	26.7	40.4	32.4	13.5	17.0	14.6	15.9
경상수지(E)	"	28.5	38.3	20.9	-10.3	-15.7	73.9	14.1	20.3
환율(연평균)(E)	현지국/US\$	32.3	31.0	31.3	32.0	35.1	34.8	35.2	31.98
해외직접투자(U)	억 달러	150.9	84.1	172.6	184.0	73.7	103.7	-	-
외국인직접투자(U)	억 달러	117.1	37.7	-62.8	144.2	110.8	45.5	-	-

자료: IMF(I), EIU(E), 태국 국가경제사회개발위원회(N), 태국 중앙은행(T), 태국 상무부(C), UNCTAD(U)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 총리 교체와 신정부의 주요 정책
- ※ 관광산업의 부흥 및 재정 수입 확대
-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태국의 부상
- ※ 태국의 전기차 생산 허브화

가. 총리 교체와 패통탄 신정부의 주요 정책

□ 패통탄 친나왓 신정부의 주요 정책

- '24년 8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가 헌법 윤리규정 위반으로 총리직에서 해임, 이를 뒤인 16일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 패통탄이 하원에서 새 총리로 선출됨
- 패통탄 총리는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 대표 출신으로 전임 총리와 같은 당 소속이며, 최저임금 인상, 디지털 지갑 등 전임 정부 정책을 이어나가겠다 발표
- 총리는 취임 후 첫 정책 성명 발표하며 태국 사회가 직면한 9가지 과제 제시
 - * ① 가계부채 : 태국 가계부채 16조 바트(GDP의 90%)에 달하며, 부실채권 비율 상승 추세
 - ② 고령화 : '23년 고령화 사회 진입, 낮은 출산율·노동생산성·사회복지 문제 해결책 미비
 - ③ 마약 : 마약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 안전 위협, 관련 범죄 29% 증가·중독자 190만 명 증가
 - ④ 중소기업 : GDP의 35%·고용 3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실채권·유동성 문제 직면
 - ⑤ 대외무역경쟁 : 영세사업자의 공급망·기술 변화 부적응, 해외사업자와(수입품) 경쟁 심화
 - ⑥ 기후변화 : 비정상적인 가뭄과 폭우 및 대기오염으로 인해 태국 농업·관광산업 영향
 - ⑦ 정치 불안정 : 쿠데타·분열 양극화 등 오랜 정치적 불안정으로 경제·투자 신뢰도 하락
 - ⑧ 행정시스템 : 기관의 구조 분산·비효율로 국민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⑨ 지정학적 상황 : 무역장벽 및 강대국 사이의 양극화·무역경쟁으로 인한 도전과제 직면
- 정부가 즉각 추진해야 할 시급한 정책 10개와, 중장기 정책 3개를 발표

〈패통탄 총리 정책 성명 주요 내용〉

주요 정책		세부 내용
단기 정책	1. 부채 시스템 구조 조정	- 특히 주택 및 자동차 대출에 대한 시스템 전반의 부채 구조 조정을 추진 - 전문 금융 기관을 통해 태국 국민의 금융 지식을 높이고 저축을 촉진
	2. 중소기업 기업을 지원	- 불공정한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경쟁으로부터 중소기업 보호 - 정부와 민간 공동기금 설립 및 채무 유예 등의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부채문제 해결

주요 정책		세부 내용
중장기 정책	3. 공공 유틸리티 가격 인하	- 에너지 가격의 재구조화 및 직접 전력 구매 계약(Direct PPA)에 대한 요구사항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신속하게 진행 - 국가의 전략적 안보를 위한 전략적 석유 비축(SPR) 시스템을 개발하고, 추가 에너지 자원을 탐색하고, 캄보디아와 중북 청구권 지역(OC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에너지 비용을 줄임 - 대중교통 시스템 개발 추진 및 '단일 요금' 정책 지원, 운송 비용 부담을 경감
	4. 지하 경제의 양성화	- 비공식 경제를 수입 시스템에 도입하여 국가에 새로운 수입을 창출(GDP 50% 이상의 가치)
	5.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	- 디지털 지갑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
	6. 농민 소득 수준 향상	- 농업 기술(Agri-Tech) 발전을 통한 농업의 현대화, 생산성 향상 및 식량 안보 확립 - 농산품 부가가치 향상 및 가격 인상을 통한 농민 소득 수준 향상
	7. 관광 진흥 관광객 유치	- MICE 관광 및 외국인 관광객(디지털 유목민) 적극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 창출 -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8. 마약 문제 해결	-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생산 및 거래 원천 제거, 불법 수입 단속, 마약 거래자 자산 압수 - 지역 사회 내 마약 중독자에게 치료, 직업 훈련, 교육 등의 사회적 재할 기회를 제공
	9. 범죄 문제 해결	- 사이버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역량과 효율성 강화 - 주변국과의 협력 및 상업 은행 간의 공동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 피해자에게 신속한 지원 제공
	10. 사회 복지 제도 확대	- 장애인, 노인, 소수민족 및 무국적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해 평등한 기회를 육성
중장기 정책	1. 기존 산업 확대 성장	1.1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 차량(HEV, PHEV, BEV 및 FCEV)으로의 전환 촉진 1.2 태국의 창조적인 문화(Creative Culture)의 발전을 통한 '소프트 파워' 증진(현지 요리, 태국 직물, 무에타이, 태국 공연 예술, 주류 등)
	2.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	2.1 녹색 경제(Green Economy), 친환경 경제 촉진 2.2 전자(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등)산업의 강점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의 지속적인 발전 2.3 의료 서비스 및 웰빙 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헬스케어 기술 및 생명공학의 혁신을 통한 태국의 메디컬 허브화 2.4 금융 관련 생태계를 발전,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태국을 금융 중심지로서 자리매김
	3. 산업 혁신 인프라 개발	3.1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 3.2 철도, 수로, 도로 및 항공 운송을 위한 대규모 교통 인프라(메가 프로젝트) 개발, 물류 비용을 줄이고 콜드체인 시스템 개발 3.3 에너지, 자원 관리 관점에서의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한 양질의 공공 서비스 개발 촉진(가정용 태양광 발전, 수자원 관리 효율성 증진) 3.4 양질의 디지털 기술 인프라 개발 3.5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둔 세금 구조 개혁 3.6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 증대

나. 관광산업 부흥 및 재정 수입 확대

□ 카지노 합법화를 통한 관광산업 부흥 및 재정 수입 확대 도모

- **패동탄 정부, 전임 세타 정부의 카지노 합법화 및 오락단지 개발 본격 추진**

- '24년 3월 태국 하원은 카지노와 호텔, 쇼핑몰, 놀이공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오락단지 건설 방안을 담은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승인함
- '24년 하반기에 열린 공청회에서 20조 원 규모의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 계획은 80%의 지지를 얻었으며, 태국 정부는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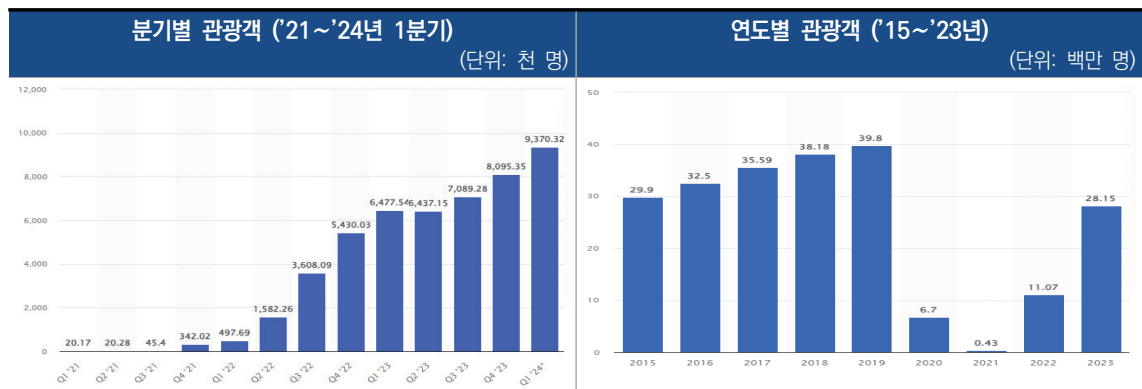
- **카지노 엔터테인먼트 단지 개발을 통해 GDP의 약 50% 규모 수익 예상**

- 단지 개발을 통해 지하 경제 양성화와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단지의 글로벌 사업 가치는 53조 바트(1조 5,000억 달러)로 추산됨
- 카지노 허가 비용은 초기 50억 바트(2,047억 원) 및 연간 10억 바트(409억 원)
- 카지노를 통해 첫 해에만 최소 120억 바트의 세금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 관광산업의 회복과 수익 확대

- **태국 주요 산업인 관광 부문의 회복 및 관련 수입 확대**

- '24년 1~8월 외국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2,350만 명), 관광수익 약 329억 달러 창출, 태국 정부의 '25년 관광 수입 목표는 3조 5천억 바트
- * '24~'25년 태국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3,600만 명, 4,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산업의 GDP 비중은 2019년 기준 17.9%(3조 290억 바트)를 차지했으며, 관광업 관련 고용 인력 437만 명으로 태국 경제의 주축을 차지하는 산업



자료: statista

- '24년 9월 신임 관광부 장관 취임식에 관광세 제도 재도입 안건 논의

- 관광세 제도 시행 시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관광객은 300바트(약 1만 2,000원)를, 해상 및 육로로 도착하는 관광객은 150바트(약 6,000원)를 납부해야 함
- 관광세 도입 시 1년 이내 최소 3조 바트(약 121조 원) 이상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관광세는 인프라 개선 및 관광객 안전보장에 사용

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태국의 부상

□ 태국, 미·중 무역 경쟁 여파로 인해 생산기지로 각광

-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24년 5월)하는 등 미·중 무역 경쟁이 심화되자 기업들은 동남아로 투자를 선회
- 전자전기 및 자동차산업 관련 탄탄한 공급망을 가진 태국이 생산기지로 부상
 - 글로벌 가치사슬 태국 참여 지수 '20년 0.93 → '25년 1.03 전망(크롱스리 리서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태국 진출 사례〉

기업명	세부 내용
Ricoh	- '19년 5월 일본 사무기기 및 산업용품 제조업체 RICOH는 미·중 무역 경쟁으로 중국산 제품에 추가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주요 복합기 생산시설을 태국으로 이전
WUS Printed Circuit	- 화웨이 기술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는 WUS Printed Circuit은 '22년 10월 해외 고객이 무역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태국 내 신규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데 2억 8천만 달러 투자 - 2025년 상반기에 일정 수준의 대량 생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
Panasonic	- '23년 7월 태국 투자청은 파나소닉이 일본과 중국에서 생산하던 전자 계측기 및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PLC)와 같은 자동화 장비 생산기지를 태국으로 이전했다고 발표
Sony	-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23년 기준 중국 내 카메라 생산량의 90% 이상의 생산 라인을 태국으로 이전 -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용 제품만 생산해 납품할 수 있도록 일부 생산시설만 유지

□ 중국 제조업체, 관세 등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제조시설 이전 활발

-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 및 태국 정부의 EV3.0~3.5 정책(전기차 태국 내 생산 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 진출 활발

- '24년 상반기 태국 투자청을 통한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승인 금액은 1,018억 바트(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1% 증가, 중국 1위 투자국으로 등극
- '23년부터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구매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한 태국으로의 전기차 생산시설 이전 증가
 - * 태국에서 생산 중인 中 전기차 브랜드: MG(연 10만 대), BYD(연 15만 대), GWM(연 8만 대), Neta(연 2만 대)
 - * Changan Automobile, GAC Aion 해외 첫 생산시설로 태국을 선정

〈중국의 對태국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바트, 억 달러)

구분	금액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금액		동기비 증감률
총 FDI(신청 기준)	455,331	135	433,971	129	663,239	197	325,736	96	16.3
중국	38,567	11	77,381	23	159,387	47	72,873	21	19.2
총 FDI(승인 기준)	280,670	83	320,445	95	559,009	166	359,787	107	39.7
중국	47,599	14	41,691	12	124,782	37	101,760	30	80.1

자료: 태국 투자청(BOI)

라. 태국의 전기차 생산 허브화 정책

□ 태국 정부, 무공해 차량 전환 이니셔티브

- 태국 정부는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NEVPC)를 설립하여 전기차 생산 및 구매 촉진, 전기차 충전 등 관련 인프라 확대를 목표로 여러 정책을 추진 중
- 태국 '24년 8월 누계 기준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 200,128대 기록
- 태국 정부 '35년 전기차 생산 및 사용 비중 100% 확대 목표 로드맵 발표
 - * 태국 정부 무공해 차량 전환 목표 : '25년 15% → '30년 30% → '35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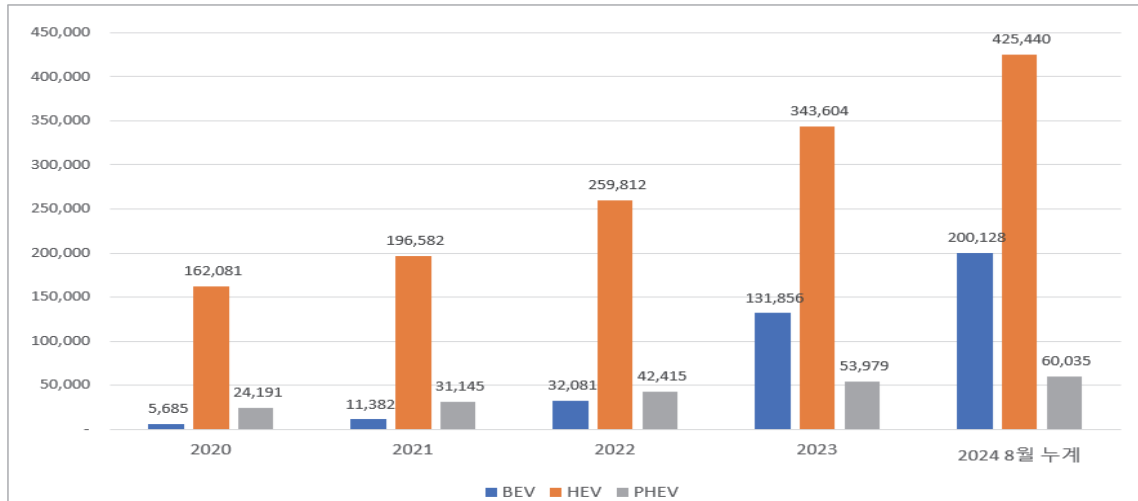
〈태국 정부 무공해 차량 전환 목표〉

(단위: 천 대, %)

	유형	무공해 차량 목표 등록 대수 (무공해 차량 비중)		
		2025	2030	2035
사용량	승용차, 픽업트럭	225.0 (30)	440.0 (50)	1,154.0 (100)
	오토바이	360.0 (20)	650.0 (40)	1,800.0 (100)
	버스	18.0 (20)	33.0 (35)	83.0 (100)
	특특(삼륜차)	0.5 (85)	2.2 (100)	2.8 (100)
생산량	승용차, 픽업트럭	225.0 (10)	725.0 (30)	1,350.0 (100)
	오토바이	360.0 (20)	675.0 (30)	1,850.0 (70)
	버스	18.0 (35)	34.0 (50)	84.0 (85)
	특특(삼륜차)	0.5 (85)	2.2 (100)	2.8 (100)

자료: 태국전기자동차협회(EVAT), 국토교통부(DLT)

〈태국 무공해 차량 등록 현황〉



자료: 태국 도로교통국

□ 태국 정부의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화 정책

- '23년 11월 태국 정부는 EV3.0의 연장선인 EV3.5(2024~2027) 정책을 발표, 소비자 구매보조금, 기업의 태국 내 생산 여부에 따른 관세 감면 혜택을 제공
- 완성차 수입 시 '24~'25년 기간 동안 관세·소비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조립차 생산 시 '24~'27년 동안 소비세 감면 및 보조금 혜택
- 기존 EV3.0 정책 대비 보조금 혜택은 축소, 태국 내 전기차 생산 의무는 강화

- 태국 투자청은 전기자동차 생산 관련 전기승용차 업체 14개, 전기상용차 업체 2개, 전기버스 및 트럭 생산 업체 5개 프로젝트 승인('24년 5월 기준)

〈태국 내 주요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진출 현황 (2024년 4월 기준)〉

브랜드	투자 금액		연간 생산능력 (대)	생산 시작 연도
	백만 바트	억 달러		
MG	10,000	2.9	100,000	2024년 1분기
GWM	22,600	6.7	100,000	2024년 1분기
NETA	-	-	20,000	2024년 1분기
BYD	17,891	5.3	150,000	2024년 6월
GAC AION	6,400	1.9	100,000	2024년 7월
CHANGAN	8,862	2.6	100,000	2025년 1분기

자료: Krungsri Research

- 최근 중국 업체가 제조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하여 태국 시장을 적극 공략 중, '24년 상반기 기준 배터리 전기차(BEV) 시장 내 중국 브랜드 점유율은 86%

* 태국 판매량 상위 전기차 브랜드('23년 기준): BYD(38.9%), MG(17.2%), NETA(17.2%), Tesla(11.1%), GWM(9.1%), Volvo(3.0%), BWM(1.9%)

〈2024년(1~7월) 배터리 전기차 판매 현황〉

국가	점유율(%)	브랜드	판매 현황(대)
중국	86.2	BYD	17,396
		NETA	4,278
		GWM	1,853
		MG	6,104
		CHANGAN	3,699
		GAC	3,391
미국	6.0	TESLA	2,538
유럽	7.3	VOLVO	1,575
		BMW	1,020
		MINI	91
		PORSCHE	169
		MERCEDES	211
		AUDI	48
일본	0.4	NISSAN	10
		TOYOTA	66
		HONDA	74
한국	0.2	HYUNDAI / KIA	70
합계			42,593

자료: autolifethailand.tv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 (정치)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과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선출
- ※ (경제) 수출 성장, 관광산업 활성화,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 ※ (산업) 자동차, 전기·전자, 농업 및 식품산업 발달
- ※ (정책) 태국 12대 미래산업 육성 정책과 2023~2027 투자 촉진 정책

가. 정치 환경

□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과 패통탄 친나왓 총리의 선출

- '24년 8월 14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을 결정
 - '24년 4월 개각에서 세타 총리는 피치트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
 - '24년 5월, 상원의원 40명은 피치트의 장관 임명은 위헌(헌법 제160조)이라며 피치트와 세타 총리의 해임 청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피치트는 판결 전 사임
 - * 피치트는 '08년 대법원 고위 공직자 형사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다 법정모독죄로 수감
 - '24년 8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가 피치트를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헌법 윤리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세타 총리의 유죄 및 해임을 판결함
- '24년 8월 16일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제31대 총리로 선출
 - 패통탄은 탁신의 세 자녀 중 막내딸로 '21년 프아타이당 고문으로서 정계 입문, '23년 총선 선거운동을 이끌었으며 '23년 10월 프아타이당 대표로 선출됨
 - 패통탄은 16일 진행된 하원 총리 선출 투표에서 프아타이당이 이끄는 연립정부 정당 단독 후보로 지명, 과반 득표 성공(찬성 319표, 반대 145표, 기권 27표)
 - * '23년 총리 투표에는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 과도조항에 따라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이 참여했으나, 이날 투표는 하원 단독으로 진행됨
 - 쿠데타로 축출 후 망명에서 돌아온 아버지 탁신 친나왓(2001~2006), 현재 망명 중인 고모 잉락 친나왓(2011~2014)에 이은 친나왓 가문의 세 번째 총리
 - 잉락 전 총리에 이은 태국의 두 번째 여성 총리이자 37세의 최연소 지도자

□ 태국 내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ove Forward Party)의 해산

- '24년 8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형법 112조)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위헌 판결, 전진당에 해산 명령을 내림
- 현재는 전진당 간부에 10년 정치 활동 금지 명령, 전진당은 '국민당'으로 새출발, 의원 148명 중 143명(간부 5명 의원 자격 상실)은 신당 합류 시 의원직 유지

□ 패통탄 친나왓 신정부 출범

- 패통탄 총리는 전임 세타 타워신 총리와 같은 프아타이당(Pheu Thai Party)이며, 세타 총리의 주요 정책(디지털 지갑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공언
- 패통탄 내각 36명 중 23명의 장관(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마릿 싸응이암퐁 외교부 장관 등)이 기존 세타 내각의 자리를 그대로 지킴

〈태국 새 내각(장관) 명단〉

부처	장관명 및 소속 정당	부처	장관명 및 소속 정당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품탐 웨차야차이 (Phumtham Wechayachai) 프아타이당	상무부 장관	피차이 나립타판 (Pichai Naripthaphan) 프아타이당
부총리 겸 교통부 장관	수리아 중롱루앙킷 (Suriya Juangroongruangkit) 프아타이당	사회개발인간안전부 장관	와라웃 씨라빠아차 (Varawut Silpa-archa) 차타이파타나당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곤 (Anutin Charnvirakul) 품짜이타이당	법무부 장관	타위 썬쌔 (Tawe Sodsong) 쁘라차차당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피라판 짜리랏타위팟 (Pirapan Salirathavibhaga) 루암타이쌍창당	노동협동조합부 장관	나릿몬 핀요싌왓 (Narumon Pinyosinwat) 팔랑쁘라차랏당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피차이 춘하와치라 (Pichai Chunhavanjira) 프아타이당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차름차이 씨언 (Chalermchai Srion) 민주당
부총리 겸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쁘라삿 찐툰루앙텅 (Prasert Chantararungthong) 프아타이당	고등교육과학연구 혁신부 장관	수파맷 이싼팍디 (Supamas Isarabhakdi) 품짜이타이당
총리실 장관	찌라폰 싯투플라이 (Jiraporn Sindhuprai) 프아타이당	공중보건부 장관	솜삭 텡수틴 (Somsak Thepsuthin) 프아타이당

부처	장관명 및 소속 정당	부처	장관명 및 소속 정당
노동부 장관	피팟 라차깃쁘라칸 (PhipatRachakitprakarn) 품짜이타이당	교육부 장관	폼푼 치첩 (PermpoonChidchob) 품짜이타이당
산업부 장관	에까낫 프럼판 (AkanatPromphan) 루암타이쌍창당	외무부 장관	마릿 싸이암푹 (MarisSangiampongsa) 프아타이당
관광체육부 장관	싸라윙 티안텅 (SorawongThienthong) 프아타이당	문화부 장관	쑤다완 왕쑉파깃꼬쑤 (SudawanWangsupakijkosol) 프아타이당

자료: 태국 왕실 관보

나. 경제 환경

□ '25년 태국 경제는 수출, 관광, 공공 투자 부문의 확대가 견인하여 성장 전망

- (수출) '25년 경제는 수출 부문이 견인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경기 침체 및 태국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인해 수출 성장세는 과거보다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생산) 전반적인 수출 개선에 따라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재고와 경기 침체에 따른 국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여전히 역풍에 직면
- (투자) 정치적 불안정 해소에 일부 회복, 건설산업 둔화 및 유동성 경색의 영향으로 민간투자는 침체,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는 활기를 띌 것으로 보임
- (소비) 정부의 가계부채 감소 정책에 따른 대출 규모 축소로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되어 자동차 등의 내구재 판매가 감소, 민간 소비는 계속 둔화 전망
- (금리)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정부의 금리 인하 설득에도 불구하고 정책 금리를 2.5%로 유지하고 있으나, 미 연준 '빅컷' 단행 등 주요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조 및 환율 변동성으로 2025년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

〈2024년·2025년 태국 경제 전망〉

경제 전망치	단위	2024년		2025년
		3월 기준 전망치	6월 기준 전망치	6월 기준 전망치
실질 GDP	%YOY	2.7	2.5	2.9
민간소비	%YOY	2.4	3.2	2.9
정부소비	%YOY	1.4	1.4	3.7
민간투자	%YOY	3.8	3.6	4.8
공공투자	%YOY	1.1	-0.5	4.2
수출	%YOY	3.1	2.6	2.6
수입	%YOY	4.0	3.8	3.6
외국인 관광객	백만 명	36.2	36.2	40.4
인플레이션	%YOY	0.8	0.8	1.0
환율	THB/USD	35	36	34

자료: 태국 시암상업은행(SCB)

□ 90%를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의 가계부채, 가계 구매력 위축에 영향

• 태국 가계부채 수준 GDP의 90%를 상회하여 아세안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

- '24년 1분기 태국 가계부채 규모 16조 바트(644조 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90.9%
- 태국 정부와 시중은행은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섬
- 대출 축소에 따른 구매력 감소로 건설·자동차산업 침체('24년 1분기 주택 213,429채 미분양, '24년 7월 자동차 판매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

*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20년부터 4년 연속 85% 이상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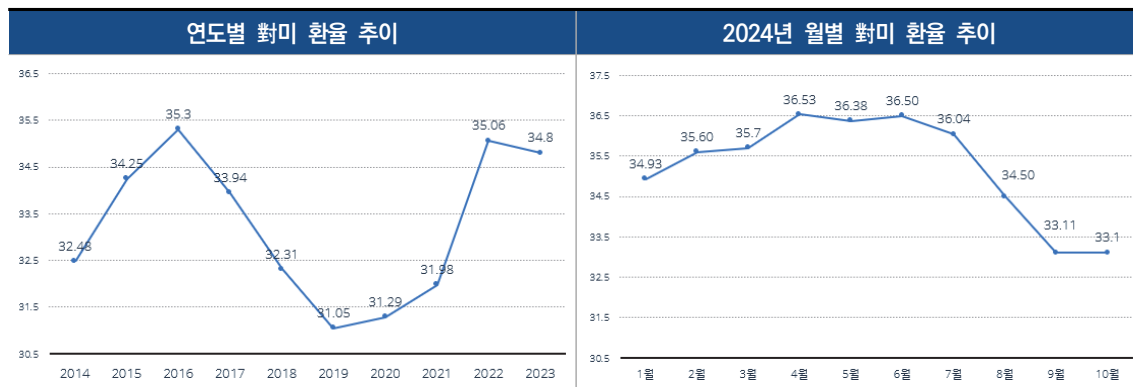
□ 美 금리 인하에 따른 환율 변동성 증가 및 바트화 강세로 수출 경쟁력 저하

• 미국 기준금리 0.5%포인트 낮추는 '빅컷'을 단행한 뒤 금리 차·달러 약세에 따른 환율 변동성 대폭 증가(7월 36.36 THB/USD → 9월 32.18 THB/USD)

• 바트화 강세는 관광, 수출 등 태국 경제의 다양한 부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관광) 태국관광위원회(TCT)는 외국인 방문객 수가 여전히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바트화 강세가 쇼핑과 관광 지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힘
- (수출) 태국산업연맹(FTI)은 바트화 강세로 인해 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및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었다고 발표

- '24년 9월 재무부는 바트화 강세 및 높은 기준금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수출 경쟁력에 통화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자료: 태국 중앙은행

다. 산업 환경

□ 자동차산업

- 태국은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는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
 - 태국 2023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0위, 상용차 생산 4위 국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태국 GDP의 약 10%를 차지

〈태국 자동차산업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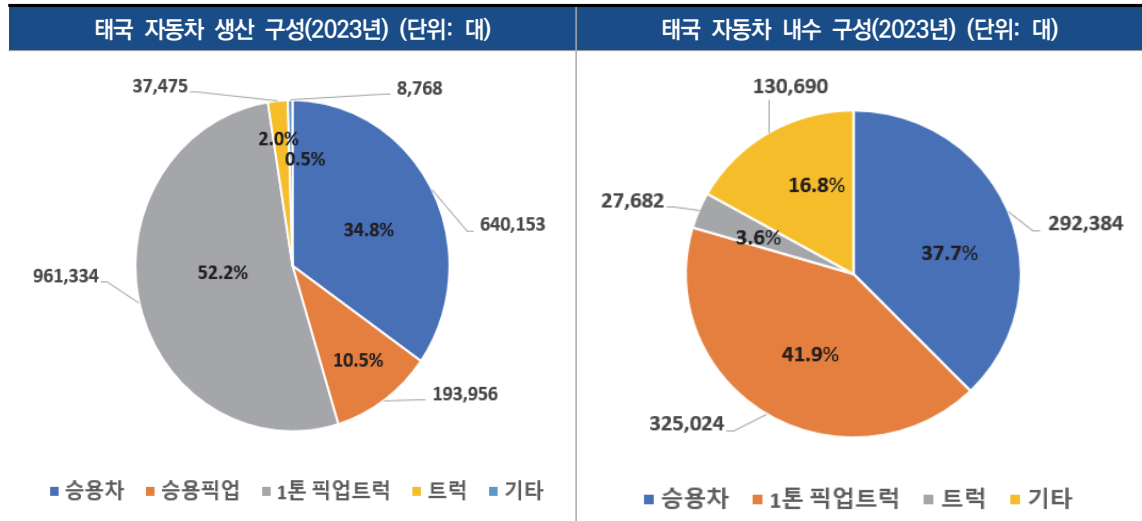
(단위: 대, 전년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8월
생산	1,426,970 (-29.1)	1,685,705 (18.1)	1,883,515 (11.7)	1,834,986 (-2.6)	1,005,749 (-17.7)
내수	792,146 (-21.4)	759,119 (-4.2)	849,388 (11.9)	775,780 (-8.7)	399,611 (-23.9)
수출	735,842 (-30.2)	959,194 (30.4)	1,000,256 (4.3)	1,117,539 (11.7)	688,633 (-4.9)

자료: 태국산업연맹(FTI)

• 1960년대부터 자동차산업 전략적으로 육성, 픽업트럭 생산에 강점을 지님

- 1톤 픽업트럭 태국 자동차 생산의 52.2%, 자동차 내수 소비의 41.9% 차지



자료: 태국산업연맹(FTI)

□ 전기·전자산업

• 부품 소재 수입 후 완제품 수출하는 수출 중심의 전기·전자산업 발달

- 전기·전자산업은 2023년 태국 총 GDP의 10.4%를 차지하는 주력 산업으로서 1970년대부터 정부 주도의 지원 정책 및 육성책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함
- 자국 내 금속, 플라스틱, 고무 등의 원재료 제조업 등 탄탄한 공급망 형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내에서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의 중심지를 구축해옴
- 태국 전기·전자산업 제조업체는 3,014여 개사, 고용인원은 약 75만 명 수준

〈태국 전기·전자산업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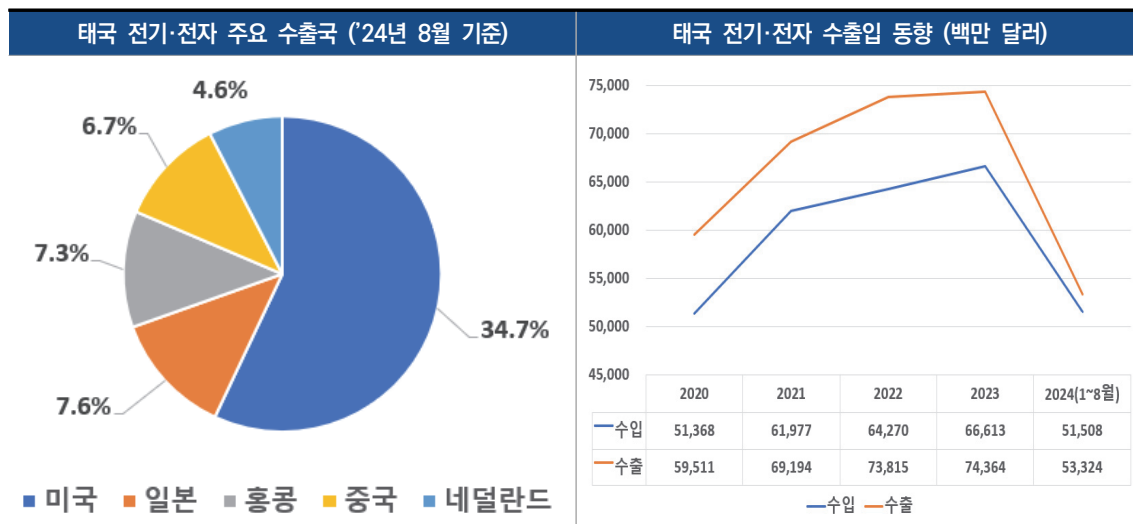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9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동기비 증감
생산	74,403	100	86,309	100	92,192	100	97,940	100	69,868	10.14
수출	59,511	80.0	69,194	80.1	73,815	80.1	74,364	76.0	61,066	-
내수	14,913	20.0	17,136	19.9	18,392	19.9	23,594	24.0	16,544	15.09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TI)

• 태국의 전기·전자 생산품의 수출 비중은 매년 75% 이상을 기록함

- '23년 태국 전기·전자 제품 수출액 746억 달러, 생산 대비 수출 비중 76.0%
- 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컴퓨터 부품, 집적회로(IC), 에어컨 순이며,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네덜란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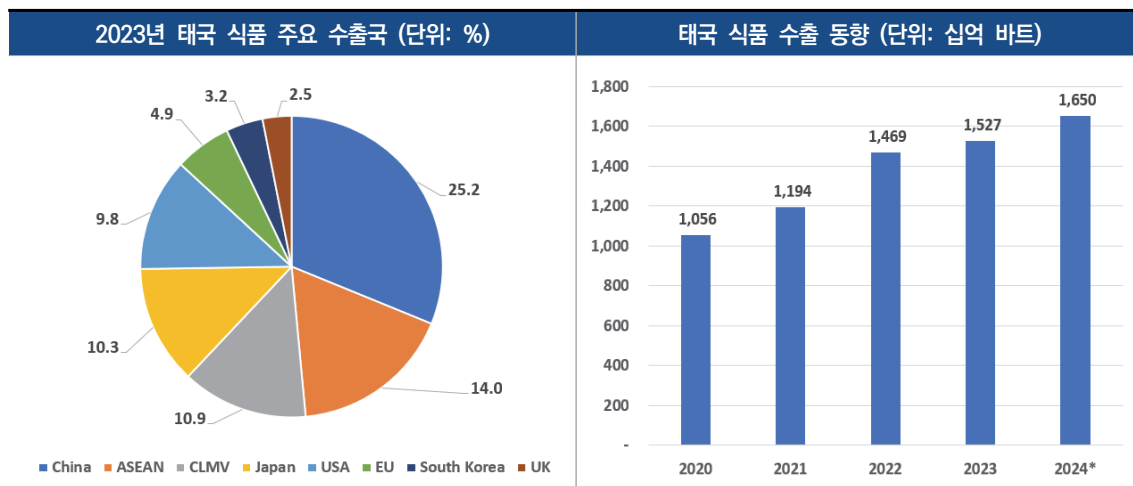


자료: 태국전기전자연구소(EEI)

□ 농업 및 식품산업

• 태국은 '아시아의 식품 바구니(Food Basket of Asia)' 또는 '세계의 부엌(The Kitchen of the World)'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농업 및 식품산업을 보유함

- 농업은 태국 GDP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며 2023년 기준 태국은 쌀 수출량 세계 2위, 카사바 수출량 세계 1위, 설탕 수출량 세계 3위를 기록
- 2023년 태국 식품 수출액 1조 5,272억 바트(45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12위 식품 수출국이 되었으며, 2024년 1분기 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3,724억 바트(11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함
- 태국 식품가공협회는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로 2024년 태국 식품 수출은 약 8.0%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자료: 태국 식품정보센터(Food Intelligence center)

• 우리나라의 對태국 식품 관련 수출 성장 및 수출 기회 확대

- K-콘텐츠를 통해 한류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 식품(K-food) 인기 증가로 관련 수요 확대되어 신선과일, 라면, 아이스크림, 소스류 등 수출이 매우 활발
-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로 최근 비건류, 면역력 강화 식품 수요 증가

* 비건 시장 규모: '19년 0.85억 달러, '24년 1.5억 달러로 전망(스타티스타)

라. 정책·규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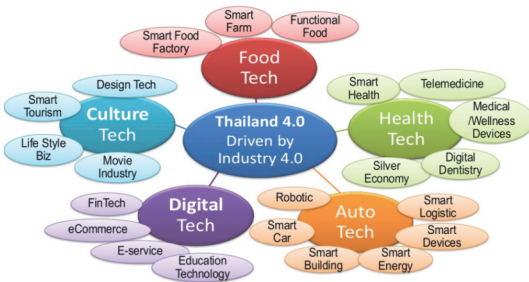
□ 태국 12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 (태국 4.0의 산업 정책)

-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반 하에 S-커브 정책을 통해 12대 미래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중점 육성
 -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 전반에 ICT를 접목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태국이 산업 우위에 있는 5개 현존 산업군의 중단기 발전 및 성장잠재력과 수입의존도가 높은 7개 신산업의 중장기 육성을 추진

태국 12대 미래 산업 현황		
First S-Curve (단기/중기)	① 차세대 자동차	자율운행차, 전기차, 인텔리전트 수송 시스템
	② 스마트 전자	스마트 가전, Advanced Creative Design
	③ 고급 의료·웰빙 관광	디지털 의료 허브 육성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농업테크(AgriTech),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
	⑤ 미래 식품	자동가공(Auto Processing), 생산유통이력추적(Traceability)
New S-Curve (장기)	⑥ 디지털	(하드웨어) 스마트 디바이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컴퓨터 서비스) DigiTech, 빅데이터, 영화, 콘텐츠 (소프트웨어) Intelligent Platform, Auto System (통신) 위성, 디지털 방송
	⑦ 로봇	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바이오매스, 혁신적 에너지(Disruptive Energy)
	⑨ 의료 허브	원격수술(Tele Surgery), 건강 모니터링
	⑩ 항공물류	스마트 물류, 자동경로차량(AGV)
	⑪ 방산	군용 드론, 군용 로봇, 무인 선적, 통신 시스템
	⑫ 교육	중점 산업 분야 교육자 양성, 자동화/정보 시스템 교육
↑		
핵심 기술 (기반)	① 바이오 기술	유전자 분자(Gene & Molecular) 기술, 오믹스(Omics) 기술, 유전체공학(Bioinformatics) 등
	② 나노 기술	약물 수송계(DDS), 막 이용(Membrane) 기술, 표면 코팅 기술 등
	③ 첨단 소재 기술	첨단 촉매 기술, 물질 합성 기술, 에너지 저장 등
	④ 디지털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사물인터넷(IoT)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등

자료: 태국 투자청(BOI),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 자료 종합

● 디지털문화보건자동차식품 등 5대 부문의 스마트화도 병행 추진

태국 4.0(Thailand 4.0) 신성장 산업		세부 추진 과제
 태국 4.0(Thailand 4.0) 신성장 산업 Food Tech: Smart Farm, Functional Food, Smart Food Factory Health Tech: Smart Health, Telemedicine, Medical/Wellness Devices, Silver Economy, Digital Dentistry Auto Tech: Robotic, Smart Car, Smart Building, Smart Energy, Smart Logistic, Smart Devices Digital Tech: FinTech, eCommerce, E-service, Education Technology Culture Tech: Design Tech, Smart Tourism, Life Style Biz, Movie Industry Source: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연구원(NSTDA)		디지털 (Digital Tech)
		핀테크, 전자상거래, e-서비스, 빅데이터, 교육 기술
		문화 (Culture Tech)
		디자인 기술, 스마트 관광, 라이프스타일 사업, 영화산업
		보건 (Health Tech)
		스마트 헬스, 원격진료, 디지털 치과, 실버 경제, 의료/웰빙기기
		자동차 (Auto Tech)
		로봇, 스마트카, 스마트빌딩,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기기, 스마트물류
		식품 (Food Tech)
		스마트팜, 기능식품, 스마트식품공장

자료: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m)(좌), 국가디지털경제사회위원회실 자료 종합(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추진

• 태국, 아세안 회원국 또는 독자적으로 14개 FTA, 자유무역협정 체결

-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6개국과 6개 FTA를 체결
- RCEP 체결, ASEAN 차원에서 중국, 한국, 일본 등과 FTA 체결로 8개 다자 FTA 체결
- '24년 7월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통관·지적재산권·원산지·무역기술장벽 등 12개 분야 협상 본격화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 논의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 시장 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협정명	서명/발효 시기	특징
ASEAN 자유무역지대 (AFTA)	1992. 1. 28 서명 2003. 1. 1 발효	2010년부터 태국이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단, 커피, 감자, 코코넛, Cut Flower 등 4개 민감 품목은 4% 저율 관세 부과)
한국-아세안 FTA	2006. 8. 24 서명 2007. 6. 1 발효	한국은 2010년 전체 상품의 85.51% 관세 면제 태국은 2017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관세 면제 * 태국은 2009. 2. 27 서명, 2010. 1. 1 발효
중국-아세안 FTA	2004. 11. 29 서명 2005. 7. 20 발효	201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일본-아세안 포괄적 경제 파트너 협정	2008. 4. 11 서명 2009. 6. 1 발효	일본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90.16% 관세 면제 태국은 2018년까지 전체 상품의 86.17% 관세 면제
인도-아세안 FTA	2009. 8. 13 서명 2010. 1. 1 발효	2016년까지 전체 상품의 80% 관세 면제
호주-뉴질랜드-아세안 FTA	2009. 2. 27 서명 2010. 3. 12 발효	태국 2020년까지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홍콩-아세안 FTA	2017. 11. 12 서명 2019. 1. 1 발효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
인도-태국 FTA	2003. 10. 9 서명 2004. 9. 1 발효	과일, 수산물, 보석 등 관세 면제
호주-태국 FTA	2004. 7. 5 서명 2005. 1. 1 발효	호주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뉴질랜드-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정	2005. 4. 19 서명 2005. 6. 1 발효	뉴질랜드는 201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태국은 2025년까지 모든 상품에 관세 면제
일본-태국 경제 파트너십 협정 (JTEPA)	2007. 4. 3 서명 2007. 11. 1 발효	전체 상품의 90% 이상 관세 면제 또는 인하
페루-태국 FTA	2009. 11. 13 서명 2011. 12. 31 발효	전체 상품의 70%를 커버하는 5,962개 품목에 대한 양국 수입 관세 면제
칠레-태국 FTA	2013. 10. 4 서명 2015. 11. 5 발효	칠레와 태국 모두 전체 상품의 90%를 즉시 관세 인하 품목으로 설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1. 11. 15 서명 2022. 2. 1 발효	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10개국 2022년 1월 1일 발효.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 발효

자료: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

□ 2023~2027 신규 투자 촉진 정책 시행

- 2023년 1월 1일 태국 투자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 경제 재건을 목표로 5개년(2023~2027) 신규 투자 촉진 정책을 시행
- 장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특혜를 주는 신규 인센티브 제도와 태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장기 투자자, 산업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
 - 이전 기업, 산업 등급에 따른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과 더불어 산업 분류에 따라 최대 5년간 법인세 면제
- 투자 촉진 대상을 BCG(바이오·순환·녹색경제)산업, 고등기술산업, 기간산업, 디지털 창조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4가지 대분류 하에 10대 산업으로 개편
 - * 기존 산업 분류: 농업, 광물·세라믹·기초금속, 경공업, 금속·기계·운송장비, 전자전자, 화학·플라스틱·제지, 서비스·공공시설
- 주요 산업 발전을 위해 신규 투자 촉진 대상이 되는 산업군으로 전기차, 신에너지, 미래 식품 제조, 우주 산업 등 4가지를 추가로 지정

〈신규 투자 촉진 대상 산업군〉

신규 투자 촉진 산업군	비고
전기차 산업	수소 연료 전기차(FCEV),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 등
신에너지 산업	수력, 암모니아, 수소 발전 등
미래 식품 제조 산업	신식품, 유기농 식품 및 건강 클레임 식품 등
우주 산업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 인공위성 및 지상국 소프트웨어 개발 등

자료: 태국 투자청(BOI)

- 태국 투자청은 북부, 북동부, 중서부, 남부에 총 16개 지역을 아우르는 구역을 경제특구(SEZ)로 추가 지정
 - 해당 지역 내 목표 집중 육성 산업 중 A1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참여 시 등급별 법인세 면제 기간에 더하여 2년간 추가적으로 법인세 면제 혜택 제공, A1~A4 등급은 추가적으로 3년간 5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

〈신규 경제회랑 목록〉

경제회랑	해당 지역	목표 집중 육성 산업
북부경제회랑(NEC)	치앙마이, 치앙라이, 람퐁, 람빵	농식품, 디지털, 건설, 관광, 의료 관광
북동경제회랑(NEEC)	나콘라차씨마, 칸깐, 우돈타니, 넝카이	농식품, 바이오
중서경제회랑(CWEC)	아유타야, 나콘빠툼, 수판부리, 간짜나부리	농식품, 전기·전자
남부경제회랑(SEC)	쑤판, 라농, 수랏타니, 나콘 씨 탐마랏	농식품, 바이오, 관광, 의료 관광

자료: 태국 투자청(BOI)

□ BCG(바이오·순환·녹색경제) 정책과 ESG 경영 강화

- 태국 정부는 '19년 8월 'BCG(바이오·순환·녹색경제)' 경제 모델을 도입, '22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BCG 경제 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방콕 목표(Bangkok Goals on BCG Economy)'를 채택

* '방콕 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무역과 투자의 지속가능성, 환경보존을 주요 골자로 함

〈BCG 경제 모델 개요〉

항목	주요 내용
바이오(Bio)	농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재생 가능한 생물학적 자원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순환(Circular)	청정 기술을 활용한 생산력 극대화 및 폐기물 최소화, 재사용과 재활용을 추구
녹색경제(Green)	경제·사회·환경의 균형 유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자료: 태국 국가과학기술개발원(NSTDA)

- '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태국은 ①탄소중립 도달 기한을 '65년→'50년으로 수정, ②온실가스 감축(20~25%) 시한을 '30년→'25년으로 수정
 - 관련 실천 방안으로 태국 정부는 '18년 7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계획 (2018~2030)'을 발표, '27년까지 플라스틱 100% 재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를 주축으로 태국 내 공공·민간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관심 증가

- '22년부터 상장기업은 ESG 원칙에 따른 연례 보고서인 56-1 보고서 제출 의무화, 보고서에는 ESG 원칙에 따른 사업 운영 방식을 제시해야 함
- 2024년 발표된 S&P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태국 기업 6개사가 상위 10%에 등재
- 2022년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DJSI)에 26개 태국 상장 기업 등재

〈2024년 S&P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 등재 기업〉

기업명	업종
Airports of 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공항 운영업
B.Grimm Power Public Company Limited	전기 공급업
IRPC Public Company Limited	통신 서비스
Minor International Public Company Limited	관광 및 호텔업
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Public Company Limited	원유 정제 처리
Thai Union Group Public Company Limited	식품

자료: S&P

〈태국 주요 기업 ESG 경영 사례〉

기업명	ESG 경영 사례
PTT Global Chemical Public Company Limited	- PPT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내 30%, 2040년 내 50% 감축하고 2050년 내에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저탄소 사업을 추진 중 - PTT의 천연가스 부문 자회사인 PPTEP는 태국 최초의 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를 진행 중. 해당 프로젝트로 태국은 연간 70만~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2022년 9월 PTT는 ALPLA Company Limited와 협력하여 ENVICCO사를 설립,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등급의 친환경 재활용 플라스틱 수지를 생산할 예정
Thai Union Group Public Company Limited	- 세계 최고의 해산물 제조업체 중 하나인 타이유니온 그룹은 2016년 첫 번째 글로벌 지속가능성 계획인 SeaChange® 공개 - 타이유니온 그룹은 지속 가능한 조달과 운영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노동 관행과 제품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우선시함 - 2025년까지 브랜드 제품의 100%를 지속가능한 포장재로 사용하고, 2030년까지 개인 상표(PB) 제품의 60%를 지속가능한 포장재로 사용 예정 - 맹그로브, 산호초 및 열대우림과 같이 타이유니온 그룹의 공급망과 연결된 중요한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2억 5천만 바트(약 93억 원)를 기부할 계획
Charoen Pokphand Group Co., Ltd.	- 식료품, 농업, 통신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CP 그룹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협의회(WBCSD)의 회원으로 활동 중 - 매년 그룹 계열사 대상으로 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해 직원들이 사회적 또는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함. 그 결과, 사내 혁신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긴급 디지털 의료 시스템 'MorDee' 앱은 현재 태국 최고의 E2E 원격 의료 플랫폼으로 자리 잡음 - 2023년 6월 CP 그룹은 토요타 자동차와 협력하여 올해 11월부터 바이오 가스를 사용하여 태국에서 수소를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 - CP 그룹의 식료품 부문 자회사인 CP Foods는 올해 말까지 모든 사업에서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전환할 계획. 또한 2030년까지 친환경 제품의 매출을 총 매출의 40%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지속가능한 포장재 사용 100%를 달성할 계획

2. 시장 분석

- ※ 태국은 아세안 2위 경제대국, 인도차이나 반도 중심국으로 바트화 경제권 주도
- ※ 아세안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
- ※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전, 도시화와 가처분 소득 증가
- ※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로 주변국으로의 한류 파급효과가 가장 큰 국가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이자 바트(Baht)화 경제권 주도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인도네시아에 이은 제2위의 경제대국

- * '24년 GDP 전망치(달러, IMF) : 인도네시아 1조 4,800억, 태국 5,488억, 싱가포르 5,252억, 필리핀 4,715억, 베트남 4,658억, 말레이시아 4,455억

- 인도차이나 반도의 바트(Baht)화 경제권 주도

-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와의 무역 거래 시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결제 가능
 - 바트화 경제권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에 세계적 관심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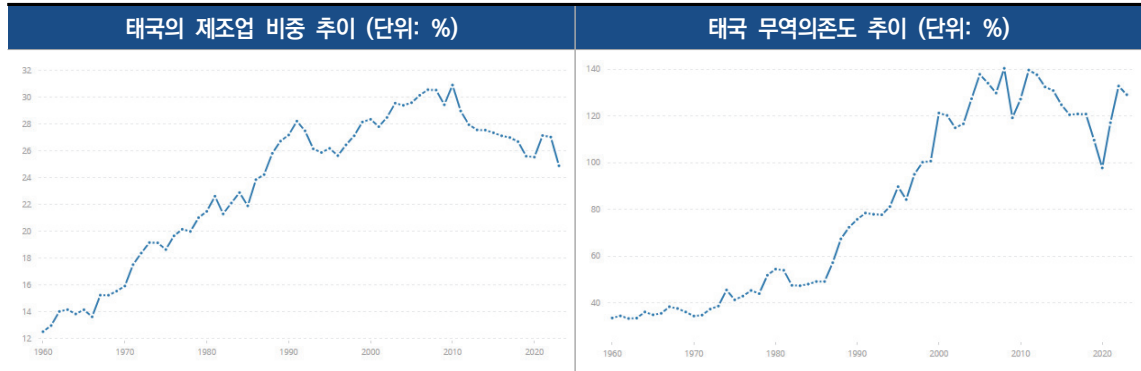
□ 아세안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

- 태국은 아세안 최대 자동차, 전기·전자 생산 및 수출 허브로 폭넓은 제조업 공급망 구축

- * 태국 제조업 비중(제조업 부가가치/GDP, WB) ('19) 26% → ('20) 26% → ('21) 27% → ('22) 27% → ('23) 25%
 - * '23년 기준 태국 자동차 184만 대 생산, 세계 10위 자동차 생산국이며 완성차 업체 25개사 진출

- 1998년 이후 2019년까지 무역의존도가 지속적으로 100을 상회한 국가로 부품 소재 수입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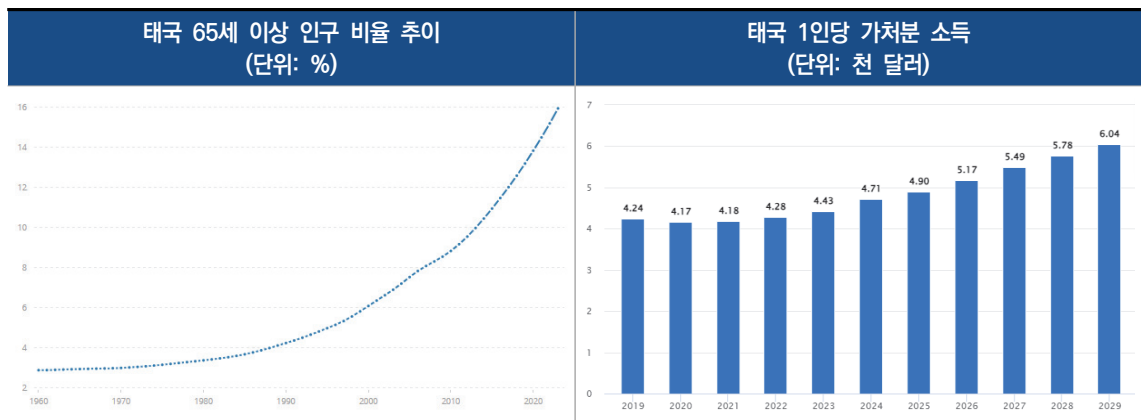
- * 태국 무역의존도(교역액/GDP, WB) : ('19) 110% → ('20) 98% → ('21) 117% → ('22) 133% → ('23) 129%



자료: World bank

□ 아세안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진전, 가처분 소득 점진적 증가

- 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5.96%(’23년), 10년 내 초고령 사회 진입(WHO)
- ’23년 태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430달러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29년까지 6,04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



자료: 65세 이상 인구 비율 추이(World Bank), 태국 1인당 가처분 소득(Statista)

□ 동남아 한류의 진원지이자 한류의 자발적 현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 넷플릭스, 드라마, K-Pop 등 콘텐츠 한류의 인기가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소비로 진화
 - 코로나19로 인한 양국 인적·물적 교류 급감에도 K-드라마, K-Pop에 대한 인기 지속
 - * 태국 마히돌대 주관 소프트 파워 영향력 조사에서 한국은 문화, 패션·라이프, 드라마·영화 부문에서 1위 기록

- 드라마, 만화, 게임 등 K-콘텐츠의 인기가 K-Beauty, K-Food, K-Fashion 등 한국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소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 단순 수입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 한류의 현지화 진행 중

* '18년 출시된 태국산 소주인 건배소주를 기점으로 현재 태국 내 4개 소주 제조업체 운영 중

* 2022년 태국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 1~10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

-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 주변국(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의 문화·경제·유행 선도하는 국가로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의 파급효과가 가장 큰 트리거(Trigger) 국가

나. 교역

□ 태국 수출입 동향

- '24년 8월 누계 기준, 주요 교역국의 수요 증가로 전체 교역 규모 확대
 - (교역 규모) 전년 대비 4.6% 증가한 4,007억 달러(수출 4.2% ↑, 수입 5.0 ↑)
 - (무역수지) 전년 대비 △35.0% 감소한 64억 달러 무역 적자 기록

〈태국 5개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1~8월	
					금액	동기비 증감률
수출	231,634	272,006	287,425	285,074	197,193	4.2
수입	206,156	267,343	301,030	288,509	203,544	5.0
교역액	437,790	539,349	588,455	573,584	400,737	4.6
무역수지	25,478	4,663	-13,605	-3,435	-6,351	-35.0

자료: 태국 상무부

□ 국가별 현황

- 주요 교역 대상국은 ①중국, ②미국, ③일본, ④대만, ⑤말레이시아 순
- 2024년 8월 누계 기준, 한-태 교역액은 1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했으며, 한국은 태국의 13위 교역국

〈태국 주요 수출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2022	2023	2024 (1~8월)	국가명	2022	2023	2024 (1~8월)
1	미국	47,535	48,353	35,593	중국	70,767	70,827	51,625
2	중국	34,430	34,173	23,540	일본	34,477	31,195	18,896
3	일본	24,656	24,594	15,486	미국	17,743	19,307	13,297
4	호주	11,187	12,215	8,327	대만	11,826	16,603	14,547
5	말레이시아	12,672	11,965	8,302	UAE	17,030	15,747	11,227
6	베트남	13,258	11,217	7,532	말레이시아	14,377	13,118	9,321
7	홍콩	10,084	11,097	7,310	한국	10,124	8,671	6,126
8	싱가포르	10,280	10,240	6,881	인도네시아	9,618	8,278	5,816
9	인도	10,533	10,116	7,577	싱가포르	8,197	8,128	5,026
10	인도네시아	10,340	10,092	6,457	베트남	7,939	7,738	6,019
13	한국	6,405	6,073	4,112	11	호주	7,128	6,840
								3,988

자료: 태국 상무부

□ 품목별 수출입

- '24년 1~6월 누계 기준, 주요 교역 품목은 전기기가·TV·VTR(19.0%), 보일러·기계류(13.5%),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10.5%), 일반 차량(7.6%), 귀금속(5.8%)
 - 전기기가·TV·VTR은 전자집적회로의 높은 수입 비중, 교역 1순위 품목
 - 자동차, 전기·전자산업용 부품 소재 수입 후 완성품 수출하는 가공무역 발달
-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고환율로 인한 광물성 연료 수입액 증가
 - 적자폭이 가장 큰 품목은 광물성 연료(△210억 달러)이며, 흑자 품목은 일반 차량(112억 달러), 고무와 그 제품(72억 달러), 보일러 기계류(48억 달러) 순

〈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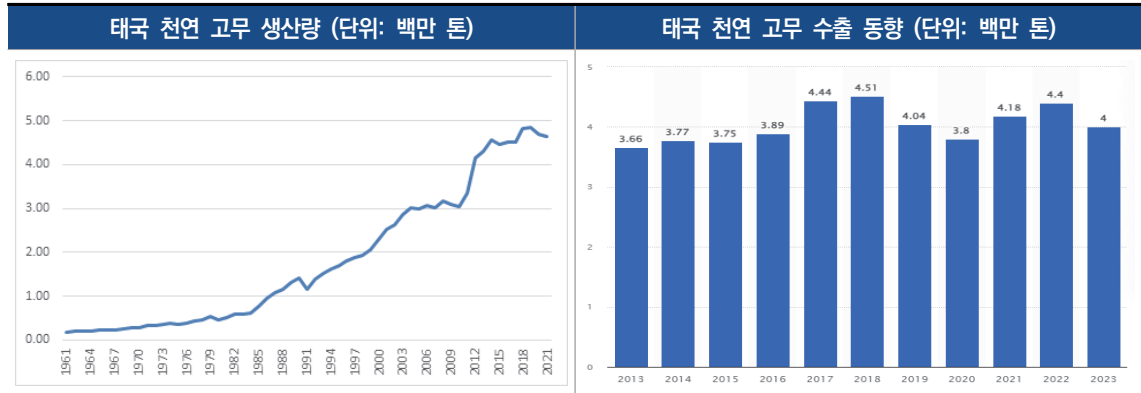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순 위	수출			수입		
	품목(HS코드)	2023	2024.1~6월	품목(HS코드)	2023	2024.1~6월
1	전기기기, TV, VTR(85)	49,479 (17.7)	24,275 (17.0)	전기기기, TV, VTR(85)	58,926 (20.2)	31,528 (21.0)
2	보일러 기계류(84)	40,378 (14.4)	22,280 (15.6)	광물성 연료(27)	55,191 (18.9)	25,883 (17.2)
3	일반 차량(87)	33,455 (12.0)	16,705 (11.7)	보일러 기계류(84)	31,033 (10.6)	17,456 (11.6)
4	고무와 그 제품(40)	16,755 (6.0)	8,666 (6.1)	일반 차량(87)	14,797 (5.1)	5,466 (3.6)
5	귀금속(71)	14,460 (5.2)	7,478 (5.2)	귀금속(71)	13,557 (4.6)	9,560 (6.4)
6	플라스틱(39)	13,000 (4.7)	6,355 (4.4)	철강(72)	12,139 (4.2)	5,448 (3.6)
7	광물성 연료(27)	10,927 (3.9)	4,856 (3.4)	플라스틱(39)	9,845 (3.4)	5,116 (3.4)
8	과실·견과류(08)	6,905 (2.5)	3,940 (2.8)	철강 제품(73)	7,860 (2.7)	4,104 (2.7)
9	육·어류 조제품(16)	6,411 (2.3)	3,258 (2.3)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90)	6,669 (2.3)	3,165 (2.1)
10	철강 제품(73)	5,473 (2.0)	3,000 (2.1)	각종 화학 공업생산물(38)	5,886 (2.0)	2,663 (1.8)
10대 수출 품목 합계		197,243 (70.5)	100,813 (70.4)	10대 수입 품목 합계	215,904 (73.9)	11,039 (73.5)
전체 수출 합계		279,845 (100)	143,245 (100)	전체 수입 합계	292,089 (100)	150,265 (100)

주: 괄호 안 숫자는 수출/수입 비중
자료: GTA(HS코드 2단위 기준)

□ 주요 원자재 보유량 및 교역 규모

- 태국은 세계 최대 천연 고무 생산국으로 '23년 기준 약 471만 톤의 천연 고무를 생산했으며, 전 세계 천연 고무 생산량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음
- '23년 태국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약 400만 톤의 천연 고무를 수출함



자료: 스타티스타(FAO, 태국 상무부)

□ 무역 장벽

- '24년 9월 기준, 태국 정부는 23건의 수입 규제(반덤핑 규제 22건, 반덤핑 우회 규제 1건) 조치를 시행 중이며, '24년 7월 상무부는 중국산 철강 반덤핑 조사 개시
 - 국가별 반덤핑 조치는 중국(16건), 한국(8건), 대만(6건), 베트남(5건), 일본(2건) 등

- 태국의 對한국 수입 규제 조치는 총 8건으로 철강/금속 관련 반덤핑관세 규제 중

태국 비관세 장벽 사례	
인증	- 의약품의 경우 태국 식약청(FDA) 인증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3개월~3년) - 무선 통신장비의 태국 수입 시 태국 방송통신위원회(NBTC)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수출하기가 어려움
통관	- 태국 세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로 인한 수입 물품 통관 지연 * 원산지 증명서(AK Form)의 경우 세관 담당자별 상이한 심사 기준 적용으로 통관 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띄어쓰기, 점(.)과 같은 구분 기호 누락 등으로 반려시키는 경우 다수) ** 연결원산지증명서 수기 표시분 비인정 사례 또한 발생
검역	- 태국에 소고기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태국 축산개발국으로부터 해당 식품에 첨가된 소의 사육 과정 및 도축 과정 증명서 발급 필요 - 소의 성분으로 구성된 첨가물은 태국 공중보건부의 식품 첨가물 규정이 아닌 광우병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하며 필요 서류 구비 어려움
공공 조달	- 공공 조달 시 자국산 활용 우선 원칙 부활로 외국 기업 입찰 참여 시 기회 균등성 저해 - 2020년 태국 재무부는 국가 차원의 진흥 또는 지원이 필요한 조달 및 조달 절차에 관한 장관령에 공공 프로젝트 추진 시 국내산 조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국내산 자재에 '메이드 인 타이랜드(MiT; Made in Thailand)' 라벨링 부착 필요 - 사용 자재의 최소 60%, 건설 프로젝트 추진 시 철강 제품의 90% 태국산 조달 원칙

다. 투자

□ 태국 외국인 투자(FDI) 동향

- '24년 상반기 외국인 투자는 승인 건수 기준 913건, 3,598억 바트(10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승인 건수는 62% 증가, 승인 금액은 40% 증가
- 상위 5개 투자국은 ①중국, ②싱가포르, ③일본, ④홍콩, ⑤네덜란드 순

〈태국의 연도별 주요 외국인 투자 동향 (승인 기준)〉

(단위: 건, 백만 바트)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국가	건수	투자액	국가	건수	투자액	국가	건수	투자액
총 투자	802	320,445	총투자	1,350	559,009	총 투자	913	359,787
일본	216	49,960	중국	347	124,752	중국	329	101,760
대만	44	45,484	싱가포르	194	99,310	싱가포르	125	94,525
중국	100	41,491	미국	37	87,994	일본	163	38,525
미국	33	38,181	일본	275	65,472	홍콩	62	31,737
싱가포르	139	34,181	대만	94	47,417	네덜란드	27	28,802
홍콩	57	22,846	한국	26	21,434	대만	54	25,162
오스트리아	3	14,803	홍콩	84	20,027	미국	29	20,289
한국	25	5,309	네덜란드	67	13,300	한국	16	4,913

자료: 태국 투자청(BOI)

- '24년 상반기 기준, 총 외국인 투자 승인 금액의 79.8%가 12대 미래 산업 분야에 집중, 전기·전자, 자동차 및 부품, 화학 및 석유, 디지털 순 투자 활발

〈집중 육성 산업별 외국인 투자 현황 (BOI 승인 기준)〉

(단위: 건, 백만 바트)

구분	건수		금액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전기·전자	87	170	107,688	139,000
농업 및 식품가공	39	63	13,379	15,920
자동차 및 부품	65	107	31,138	39,546
화학 및 석유화학	38	81	24,896	34,850
디지털	38	53	10,765	26,387
의료	21	14	14,333	3,654
자동화 및 로봇	2	13	524	1,581
바이오화학	8	6	4,854	20,411
관광	1	5	393	4,752
항공	2	3	633	872
방산	1	-	200	-
교육	1	-	5	-
합계	303	515	208,808	286,973

자료: 태국 투자청(BOI)

□ 투자 진출 진입 장벽

• 태국 외국인사업법 제8조 및 목록 1~3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 제한 업종 규정

- 목록 1~3에 해당하는 업종은 외국인이 과반 이상 지분 투자 불가

* 태국인의 지분이 과반을 넘을 경우 이는 태국 법인으로 분류됨

- 목록 2, 3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 득하면 과반 이상 투자 可

* 목록 2의 경우 아직 허가된 경우가 없으며 허가 경우 최대 60~75% 지분 취득 가능

* 목록 3의 경우 100%까지 취득 가능하며 심사 기간이 근무일 기준 60~120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태국 외국인사업법에 따른 투자 제한 업종 목록 1~3〉

분류	제한 업종	
	내용	업종
목록 1	외국인의 사업 참여 소유 지분을 49%까지로 제한 (9개 업종)	- 언론, 라디오 방송, TV 방송 관련 사업 - 쌀 경작, 농장 또는 작물 경작 관련 사업 - 축산업 - 임업 및 자연산림으로부터의 벌목업 - 어업(양식업이 아닌 태국 영해 및 태국 내 특별 경제 구역 인근 어획) - 태국 약초 채취업 - 태국 골동품 또는 유물 교역 및 경매업 - 불상 주조 및 수도승용 공양기(monk alms-bowls) 제조 - 토지 매매(land trading)
목록 2	안전보장 또는 예술, 문화, 전통,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등의 사유로 16개 업종에 대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소유 지분 한도 49%로 제한 장관협의체(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 장관(Commerce Minister)의 허가를 득한 경우 외국인이 지분의 60~75% 소유 가능	[국가안보 관련 분야(5개)]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의 생산, 판매, 관리 - 무기, 탄약, 화약, 폭발물 관련 부품의 생산, 판매, 관리 - 전쟁 장비, 선박, 항공기, 군용 차량의 생산, 판매, 관리 - 모든 종류의 전쟁 장비 및 부품의 생산, 판매, 관리 - 국내 육상, 수상, 항공 운송 관련 사업 [예술, 문화, 전통, 민속 공예품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6개)] - 골동품 매매 - 목각 생산 - 양잠, 견사 생산, 직조, 프린팅 - 태국 전통 악기 생산 - 금, 은, 동 그릇 - 태국 도자기 생산 [천연자원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분야(5개)] - 사탕수수로부터 설탕 제조 - 염전업(무염 포함) - 암연 제조 - 광산 개발(암면 폭파 및 암석 분쇄 포함) - 가구용 목재 제조 사업

분류	제한 업종	
	내용	업종
목록 3	외국 기업 대비 태국의 경쟁력이 낮은 산업으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서비스업 중심의 21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상한을 49%로 제한 예외적으로 외국인 사업 위원회(Foreign Business Committee)의 승인에 따라 상무부로부터 외국인 사업 허가(Foreign Business License)를 득한 경우에는 100% 투자 가능	- 제분업, 수산업(양식업), 임업, 합판 제조업, 라임 생산 - 회계 서비스업, 법률 서비스 - 건축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설업(예외 조항 별도) - 브로커, 에이전트업(예외 조항 별도), 경매업(예외 조항 별도) - 전통 농산물 관련 국내 무역, 소매업(총 최소자본금 1억 바트 미만 또는 점포당 최소자본금 2천만 바트 미만), 도매업(점포당 최소자본금 1억 바트 미만) - 광고업, 호텔업(호텔 경영 예외), 가이드 관광업, 식음료 판매업, 식물 재배 및 증식업, 기타 서비스업(정부 규정에 명시된 것 예외)
예외	- 태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기업의 경우 위 목록 1~3의 모든 업종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음 (한국은 해당 사항 없음) - 목록 2, 3에 속하는 업종의 경우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따른 투자 촉진 업종에 해당하거나 산업단지공단(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반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일부 예외사항 있음	

자료: 태국 외국인사업법

• 한국계 금융업 진출 제한, 현지인 고용 의무, 더딘 행정 처리 등에서 애로 발생

태국 현지 투자 애로 사례	
한국계 은행 진출 애로	- 태국의 경우 금융 규제에 따라 2013.7.2~12.30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하였고 신청 시 최소 자본금 6억 달러(약 7,000억 원)를 납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외국계 은행 신설 지점 설립 신청 접수 제한 * 1997년 외환위기로 3개 은행(산은, 외환, 하나) 철수 이후 영업 허가 획득 사례 전무 ** 2013년 산업은행이 사무소 형태로 재개설, 2020년 KB국민카드가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 'J Fintech' 지분을 인수하여 2021년 3월 KB제이 캐피탈 출범 *** 카카오뱅크는 태국 주요 금융지주회사인 SCBX(SCB X Public company Limited)와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을 위한 MOU를 체결함('23년 6월). 일반 은행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금 투입 대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세에 있는 디지털 뱅크 형태로 태국에 첫 진출 계획 중이며, '24년 9월 기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가상은행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비자 및 노동 허가 애로	- 외국인 1명 고용 시 자본금 2백만 바트(약 7,800만 원) 납입, 사업장 규모를 불문하고 태국인 4명 고용 의무 - 체류 비자 및 노동 허가 발급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
더딘 행정 처리 속도	- 한국에 비해 행정 처리 속도가 더디고, 각종 행정 서류가 대부분 태국어로만 제공되며, 영어 병기가 안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법인세 환급의 경우 규정상 정해진 기간이 없음. 업체 규모가 클수록, 환급요청액이 클수록 행정 처리 속도가 더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음. 관할 기관마다 행정 처리 차이도 큰 편임. 법인부가세 환급은 6개월~1년 정도, 법인소득세 환급은 1~2년 정도 소요되나, 케이스에 따라 3~4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
외국인 사업 허가 취득 애로	- FBL(외국인 사업 허가)는 FBA(외국인사업법)에 의거함. 외국 기업의 경우 FBL 라이선스 취득 없이 50%를 초과하여 지분 확보가 불가함에 따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다수 한국 금융기업 역시 태국 시장으로의 진출 의사가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로 태국 시장 진출에 애로가 있음 - 또한, 한국 금융기업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여, 대주주 지위 확보를 위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FBL로 인한 제약으로 인해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서비스 출시 시에 DBD(FBL 관리) 및 BOT(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려움

라. 프로젝트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 여건) 3대 건설사(ITD, Sino-Thai, Karnchang) 중 하나인 ITD의 유동성 위기로 건설 경기가 전반적 침체 기조이나, 공공 부문 지출은 2.5% 증가한 24조 원('23.9월 기준)으로 정부 주도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스마트시티, 공항, 고속철도, 지하철 등) 지속
- (전략적 가치) 태국 정부는 '태국 4.0('16년)' 및 '태국 스마트시티 개발 로드맵('20년)' 등 관련 정책을 수립, 2036년까지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건설·플랜트) 2023년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5개년 개발 계획 승인, 약 18조 원을 들여 주요 인프라(공항, 항만, 철도 등) 개발 예정

- 대표적인 도시개발형 프로젝트인 EEC(동부경제회랑), 콘깬, 푸켓 등은 고속철, 경전철 등 건설 프로젝트가 함께 발주 예정이며, 이에 따른 철도 신호체계 등 후방 프로젝트도 발주 전망

* (사례 1) '20년 철도시설공단 컨소시엄, EEC 발주 '3개 공항 연결 고속철도 관리구역' 수주

* (사례 2) '22년 LS일렉트릭, 태국 북동선·동부선 철도신호사업 프로젝트 수주

* (사례 3) '24년 A社, 라용 우타파오 국제공항 확장 시공감리 프로젝트 수주 유력

- 태국 정부 주도의 지속적 공급망·청정경제 분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및 국가 주요 인프라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 추세

* 태국-중국 고속철도 구축, MRT 퍼플라인 확장 공사에 10조 원 이상 투자 예정, '26년 완공 목표로 태국 동부경제회랑(EEC)에 국제공항, 매타똌 항구 건설사업 추진 중

* '23년 태국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72% 증가, 주요 투자 분야는 라용 우타파오 국제공항 통합 발전소 설립, 전기차 생산공장 설립 등 주요 인프라 분야

- (스마트시티) 2024년 기준, 태국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규모는 3.2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3.1% 성장하여 2028년까지 5.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Statista, 2024)

- 현재 총 55개 주에서 총 17.6억 달러 규모의 161개(155개 Livable City, 6개 New City)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태국 정부는 2027년까지 105개의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발표('24.5월 기준, 25개 주 36개 시가 스마트시티로 정부 인증 득)

* (참고) LH-태국 산업단지청, EEC '한-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24.9.10), EEC 지역 산업공단 내 한국형 스마트시티(단지) 구축 추진 중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각 지역별 프로젝트에 대해 단순 장비 수출이 아닌 기술·상품·서비스 패키지화 및 발주처 벤더 등록 등 통합적 접근 추진

- * (사례 1) 국내 B社, 포스코인터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우따파오 국제공항 내 등화 관제 시스템 납품 추진

- * (사례 2)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 13개, 현지 발주처 대상 상담회 개최('23.3월)

- (유망분야) 스마트 교통, 모빌리티 관련 솔루션 및 건설 프로젝트 진출

- * 솔루션 :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IoT 기술 기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등

- * 인프라·건설 기자재 : 고속철도, 경전철, 산업단지 등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및 관련 기자재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태국 수출입 개관

- 태국은 교역 규모 기준, 한국의 18위 교역 상대국
 - '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對태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한 51억 7,900만 달러
 - '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對태국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48억 7,300만 달러

〈한-태국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8월
수출	금액	6,853	8,524	8,584	7,548	5,179
	증감	△12.2	24.4	0.7	△12.1	△0.9
수입	금액	5,197	7,015	7,877	7,367	4,873
	증감	△2.3	35.0	12.3	△6.5	△4.8
무역수지		1,656	1,509	707	181	306
교역액	금액	12,050	15,539	16,460	14,915	10,052
	증감	△8.2	29.0	5.9	△9.4	△2.9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 한국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 현황

- '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수출 총액은 22억 8,600만 달러, 전체 44.1% 차지
- '24년 8월 누계 기준으로 10대 품목의 수입 총액은 19억 1,100만 달러, 전체 39.2% 차지

〈한국의 對태국 10대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한→태)				수입 (태→한)			
	코드	품목	2023	2024 1~8월	코드	품목	2023	2024 1~8월
1	8311	집적회로 반도체	610 (8.1)	476 (9.2)	8311	집적회로 반도체	823 (10.9)	486 (10.0)
2	2140	합성수지	444 (5.9)	358 (6.9)	0158	당류	451 (6.0)	277 (5.7)
3	6132	열연강판	404 (5.4)	263 (5.1)	1336	윤활유	442 (5.9)	237 (4.9)
4	6133	냉연강판	385 (5.1)	247 (4.8)	3203	타이어	358 (4.7)	247 (5.1)
5	8343	인쇄회로	252 (3.3)	212 (4.1)	0222	가금육류	200 (2.6)	127 (2.6)
6	1336	윤활유	245 (3.2)	166 (3.2)	6211	알루미늄괴및 스크랩	197 (2.6)	144 (3.0)
7	6134	아연도강판	226 (3.0)	137 (2.6)	0332	천연고무	169 (2.2)	133 (2.7)
8	2150	합성고무	213 (2.8)	177 (3.4)	0316	파티클보드	151 (2.0)	115 (2.4)
9	2273	화장품	193 (2.6)	148 (2.9)	8132	보조기억장치	144 (1.9)	79 (1.6)
10	2289	기타정밀화학 원료	165 (2.2)	102 (2.0)	2190	기타석유화학 제품	138 (1.8)	66 (1.4)
10대 수출 품목 합계			3,137 (41.6)	2,286 (44.1)	10대 수입 품목 합계			3,073 (40.7)
전체 수출 합계			7,548 (100)	5,179 (100)	전체 수입 합계			7,548 (100)

주: 괄호 안 숫자는 수출 또는 수입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

□ 태국 주요 수입 품목에서의 한국 경쟁 동향

- '23년 6월 누계 기준으로 태국의 10대 주요 수입 품목 중 한국의 전기기기 생산품 수입액은 14억 1,000만 달러를 기록
 - 전기기기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1% 상승, 전년 대비 순위 2계단 상승(6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HS 코드	수입액	대한국 수입			주요 경쟁 국가
				금액	순위	점유율	
1	전기기기, TV, VTR	85	31,528	1,410	6	4.5	중국, 대만, 일본, 말련, 베트남
2	광물성 연료	27	25,883	165	20	0.6	UAE, 미국, 말련, 사우디, 인니
3	보일러 기계류	84	17,456	282	11	1.6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4	귀금속	71	9,560	34	24	0.4	스위스, 홍콩, 인도, 일본, 호주
5	일반 차량	87	5,466	110	9	2.0	중국, 일본, 미국, 독일, 인니
6	철강	72	5,448	622	3	11.4	일본, 중국, 대만, 오만, 인니
7	플라스틱	39	5,116	363	3	7.1	중국, 일본, 미국, 말련, 대만
8	철강 제품	73	4,104	78	9	1.9	중국, 일본, 말련, 미국, 대만
9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	90	3,165	61	10	1.9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말련
10	구리 제품	74	2,796	71	9	2.5	중국, 일본, 필리핀, 인니, 칠레

자료: Global Trade Atlas(2024.9.)

□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1) H사(화장품), '23년 무역사절단 참가 이후 첫 태국 수출 쾌거, '24년 대비 태국 수출 10배 이상 성장 예상 ('23년 2,000USD → '24.1분기 21,000USD 수출)

- ① **[바이어 수요 발굴]** 한국산 화장품은 태국 수입 시장에서 프랑스 다음으로 2위('24년 기준)로, 여전히 태국 시장에서 인기이긴 하나, 한류 열풍을 기반으로 태국 화장품 시장에 다수의 한국 화장품 업체가 진출한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어 한국산 화장품끼리의 경쟁도 매우 치열함. 따라서 USP(Unique Selling Point, 판매할 수 있는 특별한 장점)가 없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음. 태국 바이어사는 다수의 한국산 제품을 취급하고 수입해왔으나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제품을 찾고 있었음. 동 바이어에게 '23.4월 아세안 무역사절단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 제품을 소개, 바이어-국내 기업 양측 모두 상담할 의사를 확인하고 사절단 행사에 초청하여 1:1 상담을 진행함
- ② **[적극적인 사후관리 지속]** '23.4월 상담회에서 바이어는 국내 기업 제품에 큰 관심을 보임. 덩고 습한 날씨 탓에 트러블 피부 타입이 많은 태국인들에게 재생, 미백 등 기능성 제품이 인기가 있으며, 국내 기업의 제품은 패키징, 기능 면에서 바이어 측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상담회 이후, KOTRA 방콕 무역관의 지원으로 국내 기업-바이어 간 교신 지원 및 동 바이어를 국내 뷰티 관련 상담회에 지속적으로 초청, 방한하여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를 유지하면서 동 국내 기업과의 교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③ **[태국 첫 수출 성과, 올해 전년 수출액 대비 10배 이상 성장]** '23.4월 사절단 상담 이후, '23.11월 동 바이어를 통해 태국 첫 수출 성과를 이룸. (미백/재생크림 첫 계약액 2,000USD) 시장 반응이 좋음에 따라 '23.3월 전년 초도물량에 비해 물량을 더 확대하여 21,000USD로 수입 확대. 하반기 중 판매 실적에 따라 바이어 측에서는 수입 물량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 태국에 화장품 진출이 과열된 상황이긴 하나, 여전히 매력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바이어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임

㉟ (성공 사례 2) M사, '23.11월 관계 부처 합동 K-박람회 참가, 상담 바이어와 커피·음료 제품 '24년 첫 태국 수출(28,300USD), 바이어는 동 기업의 태국 브랜드화 추진 예정

- ① [현장 수요 발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찾아달라는 식품 관련 바이어 측의 수요를 먼저 발굴 → '23년 11월에 예정되어 있던 관계 부처 합동 K-박람회 기업 선정 시 규모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ex: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 상위 링크, 또는 국내 브랜드, 디자인 수상 등)'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선정된 식품(음료) 관련 M사도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태국에 우선 진출을 희망하여 상담회에 참가
- ② [매력적인 퀄리티로 커피 제품에 대한 수입 장벽 극복] M사는 동 상담회에 신제품 및 자사의 주력 제품인 인스턴트 커피 음료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함. 다만, 태국의 경우 타국으로부터의 커피 수입은 자국산 커피 보호를 위해 통제 대상인 품목이라 수입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움
 - 인스턴트 커피를 수입하려면 우선 2개 정부 기관(무역부 Department of Foreign Trade,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MOC)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 커피 원두와 인스턴트 커피는 수입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식품 및 농산물 중 하나. 상무부는 면허를 부여하고, 면허를 받은 수입자에게 수입 쿼터 배정을 발표. 수입 쿼터 배정은 연간 기준으로, 3회로 나누어 진행됨. 수입 쿼터를 부여받지 못한 면허 소지자는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49%의 수입세 전액 지불해야 함
 - 그리고 이와 별도로, 인증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FDA, Ministry of Public Health)의 인증도 획득이 필요. FDA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실험실 시험 보고서 등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임상실험 결과서(영문)를 제출해야 함
 - 이러한 수입세 외에도 인스턴트 커피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탕세와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 태국에서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10%)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음. 블랙커피라고 할지라도 설탕이 함유되어 있다면 설탕세 과세 대상이 됨. 인스턴트 커피에 대한 소비세는 10%, 커피 원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들로 인해 태국 바이어들은 태국의 커피 수입을 일반적으로 선호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퀄리티, 패키징 디자인, 커피 외 다양한 음료 라인 구비 등이 바이어 측에서 수입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③ [브랜드를 더 확장하여 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 시장 확대 기대] 바이어 측에서는 설탕이 가미된 블랙커피 및 기타 음료를 초도 물량으로 수입. ('24년 수출액 약 28,300USD) 앞으로 기 수입한 제품 추가 수입 및 이외에 M사의 타 제품으로도 브랜드 라인을 확장하여 수입할 계획임. 태국은 동남아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로, 태국 진출을 교두보 삼아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 확대가 기대됨

㉟ (실패 사례) 한국의 인기 음료, 태국의 기후와 식습관에 맞지 않아 수출 실패

- ① [바이어 수요 발굴] C사의 주력 제품은 한국산 과일을 사용한 저칼로리 음료로, 건강을 중시하는 태국의 젊은 층에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되고, 바이어 K사가 관심을 보임에 따라 협상이 시작됨. 바이어는 제품 수입에 앞서 시장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일부 매장에서 시범 판매를 진행하기로 결정함. 초기에는 태국 내 주요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서 홍보를 진행함
- ② [부정적인 현장 및 소비자 반응] 그러나 시범 판매 기간 동안 예상 외로 판매가 저조하였고, 소비자들로부터 맛이 덜 달고 상온에서 보관이 어려워 태국의 더운 기후에서 음료가 쉽게 변질된다는 피드백을 받음. C사는 이 음료가 한국에서는 실온에서도 안정적으로 보관되며, 건강을 위한 저당 음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태국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더운 기후에서 시원하고 단맛이 강한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반응이 미미함
- ③ [계약 철회] 결국 바이어 K사는 태국의 기후와 소비자들의 맛 선호도를 고려하여, 수입 계약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이 사례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료라고 해서 태국의 기후와 식습관에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

나. 투자

□ 투자 현황

• '24년 상반기 한국의 태국 투자 신고금액은 8,700만 달러, 아세안 10개국 중 6위

* 한국 아시아세안 투자 순위('24년 상반기 신고 기준, 백만 달러): ①베트남(2,781), ②인나(978), ③싱가포르(729), ④말련(393), ⑤캄보디아(99), ⑥태국(87), ⑦필리핀(79), ⑧미얀마(12), ⑨라오스(5)

• '24년 상반기 기준, 태국의 한국 투자 신고금액은 1,700만 달러를 기록함

〈한·태 연도별 직접투자 추이 (신고 기준)〉

(단위: 천 달러,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한→태	신고금액	103,281	250,171	142,727	249,509	86,624
	신고건수	138	196	207	280	129
태→한	신고금액	5,850	11,510	7,182	671,334	16,707
	신고건수	38	37	50	80	3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 '24년 상반기 한국의 태국 업종별 투자 현황은 제조업(3,064만 달러), 금융 및 보험업(709만 달러), 건설업(483만 달러), 정보통신업(469만 달러) 순

〈한국의 업종별 태국 투자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2022	2023	2024 상반기
제조업	73,648	63,997	30,644
금융 및 보험업	1,984	111,439	7,088
도매 및 소매업	46,419	14,502	2,232
정보통신업	3,869	7,892	4,691
운수 및 창고업	2,078	4,596	860
건설업	5,234	1,469	4,8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73	2,894	1,5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9	1,052	820
숙박 및 음식점업	5,927	8,882	2,32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4	300	34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614	12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	-
농업, 임업 및 어업	56	84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181	1,927
부동산업	-	1,860	14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현지 진출 현황

• 태국 진출 우리 기업 수는 400여 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고르게 진출

- 진출 기업 수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내 세 번째 투자 대상국

• 제조업은 절반에 가까운 170여 개, 전기·전자, 철강 등 주력 산업 분야에 진출

- 업체들은 주로 차츰사오, 촌부리, 라용 등 동부경제회랑(EEC) 지역 산업단지에 밀집, 해당 지역 내 삼성전자·LG전자 및 협력업체가 진출해 있음

* 위니아딤채, 위닉스 등 전기·전자 중견기업, 아세안 생산기지 목적으로 태국 진출

* 한온시스템, 에스트라(ESTRA)는 현지 진출 외국 완성차 업체의 협력 부품사로 진출

• 태국 4.0 정책의 일환으로 태국 내 스마트시티 조성에 한-태 협력 진출 활발

* LH, 태국 EEC 경제특구 내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2년 6월 태국산업단지청(IEAT)과 개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한류 영향으로 식음료,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콘텐츠 분야 진출도 꾸준

* 맘스터치는 태국 RS 그룹의 신설 외식 법인인 MOMS Touch Thailand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으며 '22년 첫 태국 매장 오픈, '24년 6개 신규 출점해 12호점까지 확대 계획

* 에그드랍, '22년 10월 시암스퀘어에 오프라인 매장 오픈

〈업종별 진출 기업 현황〉

업종	주요 기업
제조업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행성전기, 위니아딤채, 위닉스, 한화NxMD, (철강·금속) 포스코, 세아, 동부제철, 동국제강, 풍산금속, (자동차 부품) 한온시스템, 에스트라(ESTRA), 네텍, (판매법인)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LG화학, 락앤락
도·소매, 소비재, 유통	(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X상사,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프랜차이즈) 본가, 교촌, 더비빔밥, 네네치킨, 에그드랍, 맘스터치
서비스업	(IT) KT, 라인플러스, NHN, 비트컴퓨터, 넷마블, 컴투스 (엔터테인먼트) 한태교류센터, SM트루
운수 및 창고업	(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물류) CJ대한통운, LX판토스, (운수) 롯데렌터카
건설, 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삼성E&A,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BJC중공업, 현대건설기계
금융	삼성생명, 산업은행, KBJ(국민카드)
기타	(공공기관) KOTRA, 한국관광공사, aT,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재권보호원, 수협 (언론) KBS, 연합뉴스

* 2024 해외 진출 한국 기업 디렉토리에 등재된 기업은 350개사로,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을 고려 시 약 400여 개사로 추정됨

□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1) 라이브 커머스 방송 플랫폼 L사, 태국 대표 소비재 그룹과 손을 맞잡고 성공적인 태국 투자 진출 발판 마련

- L사는 글로벌 고객 맞춤형 라이브 솔루션인 LaaS(Live Streaming as a Service) 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등 해외 각지에서 현지의 니즈에 부합하는 AI 기반 솔루션을 제시해온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기업임. 그간 약 200여 개가 넘는 국내외 브랜드사의 우수 제품을 국내외 라이브 플랫폼에 송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24.6.29일 L사-Shop Global(Saha Group 자회사) MOU 체결 및 Big X Show 신규 애플리케이션 론칭, Shop Global 지분 투자로 태국 투자 진출
- Saha Group은 1,000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한 태국 대표 소비재 제조, 수입, 유통사로 자회사인 Shop Global을 통해 온라인 시장 확대 계획
- Saha Group은 Shop Global(자회사)을 통해 온라인 시장을 전담하도록 설립하였고,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사업 운영자인 L사가 Shop Global의 지분 투자 형태로 태국에 진출하여, Saha Group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여 개의 소비재 브랜드를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를 위해 2024.6.29일 BITEC에서 매년 개최하는 Saha Group Fair(사하 그룹에서 운영하는 1,000여 개의 브랜드들이 전시 부스 형태로 참여)에서 Shop Global-L사 MOU 체결식, 태국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Big X Show' 애플리케이션 론칭(라이브 커머스 앱)을 통해 공식적으로 협업과 L사의 태국 투자 진출을 공표함
-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태국 또한 이커머스 시장, 특히 인플루언서를 이용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Saha Group이 보유한 1,000여 개의 소비재 관련 브랜드의 라이브 커머스 판촉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수립
- 태국 시장에 진출을 희망하거나, 현지 매출 신장을 기대하는 한국 기업들 또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태국 기 투자 진출 업체(L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성공 사례 2) 자동차 관련 계열사 I사, 동남아 신사업 진출로 경제 한류 효과 특목

- 자동차 관련 계열사로, 국내에서는 주로 자동차 광고를 전담해온 I사는 아시아, 특히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신사업으로서 동남아 주요 리테일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한류를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시작하게 됨
-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해 동남아 중 트리거(Trigger) 국가인 태국을 타깃으로 삼고, I사는 태국 최대 리테일 그룹인 시암 피왓(Siam Piwat) 그룹과 동남아시아 시장 내 신규 비즈니스 창출 위한 양해각서(MOU)를 '23.5.31일 체결
- 시암 피왓 그룹은 태국 최대 규모의 리테일 그룹으로 시암 파라곤, 시암 센터, 시암 디스커버리 등 방콕의 변화가 지역 내 대형 백화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일 약 50만 명, 연간 1억 8,0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하는 동아시아 최고의 복합 쇼핑몰을 보유하고 있음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I사는 새롭게 리뉴얼을 준비하는 시암 피왓 그룹의 글로벌 관광 랜드마크 시암 파라곤, 시암 센터, 시암 디스커버리, 아이콘시암의 매장 및 팝업스토어, 이벤트, 콘텐츠 구성을 공동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위한 입점 브랜드 발굴 및 마케팅 협업 제안 등을 진행할 예정임
- I사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외 브랜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돕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임
- 이후, I사는 'K-라면 팝업스토어('23.6~7월)', 하이브와 협업한 '세븐틴 팝업스토어('23.12월~'24.2월)', 'BTS 팝업스토어('24.5~6월)' 등을 통해 팝업스토어, 라이선스 상품 및 F&B 판매, 미니 카페 운영 등 고객 경험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음

◎ (실패 사례) 엔저 및 일본 금형업계 주문량 축소로 청산 절차 진행

- 태국은 제조업, 특히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는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며, 아세안 최대 자동차 생산국임. 태국은 '23년 기준 전 세계 자동차 생산 12위(190만 대, 태국 자동차제조협회, TAI), 상용차 생산 6위 국가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산업은 태국 GDP의 약 12.3%를 차지함. 제조업 기반이 마련되는 데에는 1960년대부터 이어진 일본의 투자가 한몫을 함. 토요타(1962년), 혼다(1964년), 마쓰다(1974년) 등 주요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태국에 진출하였고, 1977년 태국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투자, 특히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함
- 그러나 일부 업종의 경우 최근 엔저 지속 및 업황이 좋지 않아 전체 시장 파이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H사의 경우 '05년 JV 형태로 태국에 진출. '12년 업태를 변경(제조업)하면서 BOI(태국 투자청) 인센티브를 받음. 초기에는 금형 수출을 위해 진출하였고, 추후 현지에서 제조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나 주 고객사인 일본계 공장들의 업황이 좋지 않고, 엔저 등의 상황으로 악재가 겹침. 일본 고객사들만으로는 현지 공장 운영이 어려워 한국 기업들 대상으로도 비즈니스를 확장해보았으나, 주문 물량이 적어 국내로 복귀를 결정함
- 태국 정부는 중진국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2016년 12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인 '태국 4.0' 정책을 수립하게 됨. 이 정책의 주요 요지는 1차 산업(농업), 2차 산업(제조업), 3차 산업(서비스업) 전반에 ICT를 접목하여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임. 태국 정부는 이 12대 산업(자동차, 디지털, 로봇 및 자동화, 항공우주, 생명과학 및 바이오 기술, 유망 에너지, 농업 및 식품가공, 의료, 첨단 소재, 스마트 기기, 환경 기술,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심사 및 인센티브 부여 권한을 갖고 있는 태국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도 상기 12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있어서, 향후 태국 투자를 고려할 경우 태국 정부가 육성하는 미래 산업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다. 협력 유망 분야

①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태국 정부 투자 유치 정책과 12대 미래 산업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정책 여건) 태국은 동부경제회랑(EEC; Eastern Economic Corridor) 지역에 각종 세제·비세제 혜택 및 고속철, 항구, 도로 등 인프라 개발을 집중해 투자환경 지속 개선 중
- ※ (전략적 가치) 진출 지역(태국 정부가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EEC 지역), 품목(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방식(투자 진출, M&A, 글로벌 창업 등 현지화 중심의 패키지형)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태국은 탄탄한 제조업, 물류 기반을 갖춘 동부경제회랑(EEC)*을 태국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적극 개발하고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유치에 적극적

* 방콕 동남부의 춘부리, 라용, 차츰사오 등 3개 지역(Eastern Economic Corridor)

- 동부경제회랑사무국(EECO)에 따르면, 2020~2023년간 태국 내 투자된 금액의 50~55% 이상이 매년 EEC 지역으로 유입됨

-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의 12대 미래 산업을 EEC의 전략적 유치 산업으로 지정하고, EEC 내 특별경제진흥구역(SEPZ) 투자 기업들에게 각종 세제 및 비세제 혜택 제공

* (12대 미래 산업) ① 차세대 자동차, ② 스마트 전자, ③ 고급 의료·웰빙 관광, ④ 농업 및 바이오 기술, ⑤ 미래 식품, ⑥ 디지털, ⑦ 로봇, ⑧ 바이오 연료 및 화학, ⑨ 의료 허브, ⑩ 항공·물류, ⑪ 방산, ⑫ 교육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진출전략) 신규 투자 및 진출의 경우 EEC 지역을 주요 타겟으로 검토 필요

-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 및 동반 진출 협력사와 한온시스템, 위닉스, 위니아덤채 등 중견기업의 태국 내 사업장이 EEC 지역에 밀집

* LH-태국 산업단지청, EEC '한-태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 협력을 위한 MOU 체결('24.9.10)

- 아세안 GDP 2위, 아세안 최대 제조업 능력 등 태국의 시장 가치를 전략적으로 고려해 수출과 연계한 투자 진출, M&A(인수합병), 글로벌 창업 등 진출 방식 고도화

- (유망분야) 12대 미래 산업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진출 기회 모색

- 한-태 양국(KOTRA-EECO)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MOU를 최초 체결하고 '22년 연장하였으며, EEC를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의 양국 경제·투자 교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함

②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산업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산업 여건)** 제13차 5개년 경제사회개발계획(2023~2027) 내 '균형발전(격차 해소)'을 위한 원격의료 등 낙후지역 개발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12대 미래 산업에 고급 의료 및 웰빙 관광, 의료 허브 포함, BCG 경제 모델 추진을 위한 4대 핵심 산업에 의료 및 웰니스 포함
 - '19년부터 '27년까지 태국의 의료기기 시장은 연평균 6.1% 성장하여 '27년 시장 규모가 33.82억 달러(약 4조 4,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시장조사 전문기관 크룬타이 리서치)
- **(전략적 가치)** 아세안 의료 허브로서 1,421개의 병원, 38개의 심장센터, 22,459개의 약국을 운영 및 24만 명 이상의 의료진을 갖춘. 정부는 국민건강검진 표준화, 유전자 치료, 백신·복제의약품 등 개발, 원격의료, 임상실험 등을 적극 추진 중으로 한국의 선진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태국은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향후 평균수명 증가 및 아세안 최고 수준의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증가 예상

* '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고령자 비율은 약 13%로 2030년에 20%에 도달할 전망

- 태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SSS) 및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30바트 건강보험제도(UC Scheme)' 등의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필수 의료기기 자국 제조를 장려하는 등 국민 보건안전 향상 및 관련 인프라 확보에 큰 관심

- 태국 헬스케어 산업은 국가 의제인 'Thailand 4.0' 정책 실현을 위한 12대 미래 산업의 하나로 지정되어 정부에서 집중 육성 중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태국 헬스케어 지출 전망〉

구분	2020	2021	2022	2023e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의료비 지출 (십억 달러)	19.019	19.412	20.803	22.509	24.494	26.200	27.971	29.909	31.830
의료비 지출 성장(%) (십억 달러 기준)	-7.7	2.1	7.2	8.2	8.8	7.0	6.8	6.9	6.4
1인당 의료비 지출 (달러)	318.67	321.53	338.65	366.65	375.09	399.91	418.25	452.69	478.11

자료: Statista

□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태국 정부의 의료 산업 육성 방침과 5G 상용화 추진 계획 등이 맞물려 향후 태국 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 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의 규제 장벽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이 태국 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기에 적합한 시점

* KOTRA, '22년부터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태국 진출을 위한 네이버클라우드 협업 현지 병원 콘퍼런스, B2B 미팅 및 한-태 메디테크 데이('24.6월) 행사 등 추진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 (정치적 불안정) 2024년 갑작스러운 세타 총리의 해임과 제1당인 전진당의 해산에서 알 수 있듯, 태국은 잦은 쿠데타와 정권 교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국가 • (대외정책의 실리성) 태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생존과 독립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둔 유연하고 실리적인 대외정책 중시.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태국의 '대나무 외교' 정책 기조는 지속될 전망 • (높은 부패인식지수) 2022년 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01위로 공공 부패가 만연하며, 청탁 관련 문제가 많음
Economic 경제	• (견고한 경제 성과) 관광업 회복과 민간 소비에 힘입어 2023~2027년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3.4%로 전망 • (투자환경) 러·우 사태, 인플레이션 급등,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2022년 글로벌 FDI 유입이 급감했지만, 태국은 지난해 FDI 유입 36% 증가. 장기 거주 비자와 신규 투자 인센티브 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외 무역의존도) 2022년 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133.9%로 매우 높은 편이며, 세계적인 공급 및 수요 차질에 노출되어 있음
Social 사회문화	• (낮은 출산율) 도시화의 진전으로 태국 2023년 합계출산율 1.16명 기록, '21년 신생아 수는 48만 명으로 사망자(55만 명)보다 적었음 • (인구 고령화) 아세안에서 가장 빠른 수준의 고령화 국가, 2083년 노동 가능 인구(15~64세) 4천만 → 1만으로 줄어든 것,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에 육박할 전망 • (중산층 확대) 2023~2040년에 걸쳐 전체 가구의 39%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중산층 증가로 소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인구 다양성 증가) 외국인 장기 거주 비자(LTR) 제공 등 태국의 외국인 유치 정책과 함께 2040년까지 외국인 시민 비중은 전체 인구의 6.4% 차지할 전망
Technological 기술	• (정부 주도 디지털 정책) 태국 디지털정부 개발 계획(2023~2027년) 등 정부 주도 공공 및 민간 분야 ICT 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화 추진 중 •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태국 15~24세 인구 99.9%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바일 퍼스트 국가, 2022년 모바일 가입자 수 1억 2,900만 명 기록 • (SOC 스마트화) 태국은 2036년까지 세계 10대 스마트시티 국가로 발돋움을 목표로 스마트시티 관련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 발주 중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기존 기술 개선 및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개발, 높은 품질 경쟁력
- 세계 선도 기업 제품과 견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대비 합리적인 가격
-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선도적 기술력으로 인한 한국 기술에 대한 높은 브랜드 이미지
- 전 세계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 제품 후광효과
-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우수한 산업 경쟁력

약 점(Weakness)

-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비즈니스 운영 방식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 현지 네트워크 구축, 시장 진입·확장 어려움
- 언어적 장벽 및 태국 현지 시장 및 소비자 특성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 중국산 제품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기 회(Opportunity)

- 정부 주도 사회·경제 전반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디지털 및 ICT 분야 수요 확대
- 친환경 산업(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및 관련 친환경 자원 활용에 대한 관심 확대
-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력 확대
- 관광산업 회복에 따라 소비재 수요 증가

위 험(Threat)

-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계 은행 진출 규제에 따른 태국 시장 내 한국계 은행의 부재
- 외국인 투자 및 법인 설립에 대한 규제
- 한국 소비재 인기 확산에 따른 모방 상품 급증
- 중국산 저가 제품의 태국 시장 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산업 디지털화 진행에 따른 신시장 수요 개척 • 디지털정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공장 등 미래 산업 관련 ICT 프로젝트 수주 확대	디지털 전환 기초 활용 ICT 분야 진출 확대
ST 전략 (강점 활용)	• 한국적 패키징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 K-콘텐츠 활용한 소비재 경쟁 우위 공략	한류 경제효과 활용 뷰티·식품 시장 점유율 확대
WO 전략 (기회 포착)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신시장 수요 발굴 • 펫케어·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시장 진출 기회 포착	인구 변화 방향에 따라 부상하는 신시장 공략
WT 전략 (위험 대응)	• 친환경 차량 관련 후방산업 GVC 진입 확대 •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개발 수요에 따른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산업 공급망 조기 진입	탄소중립 친환경 산업 관련 진출 적극 확대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저출산·고령화	① 태국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 시장 공략 ◦ 친환경·기능성 애완용품 SNS 마케팅 홍보, 프리미엄 제품 포지셔닝 ◦ 고령화에 맞춘 만성 질병 관리 및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약품을 현지 의료기관과 협력해 제공
디지털 전환	② 태국 경제 디지털 전환 기초 활용 우리 기업 진출 확대 ◦ 산업 전반 ICT 기술 적용에 따른 우리 기술 기업 진출 기회 증가 ◦ 스마트 교통, 디지털 헬스케어, 에듀테크 등 분야 공략 필요
탄소중립·친환경 미래차	③ 탄소중립, 친환경 미래차 이슈 관련 신시장 기회 활용 ◦ 대·중소 동반 진출·KSP 협업 플랫폼 활용, 친환경·재생에너지 시장 진입 ◦ 전기차 부품·인프라 산업 협력 초기 단계로 역내 공급망 조기 진입 필요
K-소프트 파워	④ 경제 한류 최대 수혜주(뷰티, 식품)의 태국 시장점유율 확대 ◦ 경쟁사와 차별화된 USP(Unique Selling Point) 부각 필수 ◦ O2O 전략 : (초기) 온라인으로 리스크 최소화 → (발전) 오프라인으로 고객 경험 확산 → (확대) 긍정적 경험으로 재구매율 촉진
新성장동력 미래 산업 육성	한국의 강점인 소프트 파워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태국 신시장 선점 및 진출 확대

3-1. 태국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태국은 동남아시아 애완동물/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이며, 특히 프리미엄 제품과 건강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 * 2023년 기준 1.5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연평균 약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 특히 애완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현상이 주요 요인
- ※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의약품 시장이며, 인구 고령화와 보편적 의료 서비스(USC; Universal Coverage Scheme) 도입 덕분에 의약품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 예정
 - *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구 7천만 명에 육박하지만,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태국**
 - 꾸준한 인구 성장으로 '22년 태국 인구는 약 7천만 명을 초과했지만, '90년대부터 시작된 저출산 영향으로 2000년 이후 인구성장률 1% 미만 지속
 - * ('00년) 태국 출산율 1.67명 → ('20년) 1.24명 / 태국 보건부
 - '00년 기대수명 70.6세에서 '20년 77.4세로 상승하며 급격한 고령화 진행
 - *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 ('25년) 16.2% → ('30년) 19.6% → ('40년) 26.2%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애완동물 양육 문화 확대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요 급증**
 - 태국은 동남아시아 애완동물 및 애완동물 식품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547억 바트(약 15억 달러) 규모로 동남아 전체 시장의 절반 가까이 차지
 - 관련 시장은 연평균 약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펫 휴머니제이션 (PET HUMANIZATION)'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제품과 건강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

〈태국 애완동물 시장 동향〉

(단위: 백만 바트)

2023	2024(e)	2025(f)	2026(f)	2027(f)	2028(f)
5,775.3	6,391.9	7,035.0	7,681.3	8,378.4	9,103.8

자료: 유로모니터

〈태국 애완동물 식품 시장 동향〉

(단위: 백만 바트)

2023	2024(e)	2025(f)	2026(f)	2027(f)	2028(f)
48,935.3	54,007.5	60,406.1	67,271.3	74,646.9	82,519.7

자료: 유로모니터

•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의료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

- 태국 의약품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2,120억 바트(약 59억 달러, 동남아시아 3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5.0~6.0% 성장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2022년 기준 태국 의료비 지출은 2,300억 바트에 달했으며(GDP 2.8%, 2010년 기준 GDP 2.1%), 특히 병원 유통 의약품이 연평균 6.3% 성장하며 시장을 주도
- 또한, 30바트 보편적 의료보장제도*, 만성질환 치료 의약품의 약국 처방 및 구입 가능 등 정부 차원의 의약품 시장 성장 견인

* 병원 방문 시 30바트(약 1,181원) 진료비 지불하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이용 가능한 제도

〈태국 의약품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바트, 천만 달러)

2020		2021		2022		2023		2024(f)	
186	553	190	565	200	594	212	636	225	669

자료: Statista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애완용품·식품) 유기농, 기능성을 전면에 내세워 SNS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애완동물·식품 시장 진출 강화**

- (유망품목) 면역력 강화, 피부 건강 개선, 관절 보호 등 특정 건강 기능을 강조한 사료와 간식,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장난감, 침구류, 식기, 건강보조제
- 태국 유기농 및 기능성 애완동물 시장의 확대에 따른 기능성 사료, 건강보조제 등 애완동물의 건강 관련 프리미엄 제품 진출 기회 증가
- SNS와 전자상거래 활용도가 높은 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독형 펫푸드 서비스 등 관련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략 필요

• **(의약품) 우리 기업 강점과 태국 시장 수요를 접목한 타겟 시장 공략으로 의약품 시장 진출 본격화**

- (유망품목) 만성질환 관리 의약품, 고부가가치 바이오 의약품
- 고령화 관련 질병, 즉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항암제, 면역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의약품에 대한 수요 급증 대응
- 현지 유통망과 파트너십 구축하여 병원과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것이 중요, 태국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UCS)에 맞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의약품 제공 필요

* 태국인 주요 사망 원인 : 암, 신경혈관질환(뇌졸중), 폐렴, 허혈성 심장질환 순
입원 환자의 주요 질환 : 대사 및 내분비질환, 고혈압 및 당뇨, 신부전, 폐렴 순

- 의료 관련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학회(Medical Fair Thailand, 9월), 의사 대상 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필요

KOTRA 방콕 무역관은 중견기업 육성사업에 참가 중인 의료 관련 우리 기업의 태국 진출 지원 중. 동 사업을 통해 태국 내 유명 의료 관련 전시회 부스 참가 지원, 의사 초청 시술 시연회 개최, 학술 세미나 참가 지원 중

3-2. 태국 경제 디지털 전환 기초 활용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태국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남아 디지털 경제 대국으로 부상, 태국 디지털 산업 규모는 '23년 기준 2조 200억 바트(601억 달러) 규모로 전년비 3.88% 성장 (태국디지털경제진흥원)
- ※ 특히 의료기술 및 교육기술 분야는 전년비 각각 85.71%와 82.2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 *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및 교육산업의 디지털화와 높은 모바일 활용도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빠르게 성장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태국 정부는 12대 미래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1·2·3차 산업 전반에 ICT 기술 적용, 디지털화 추진(기존 제조업, 교통·물류, 의료, 교육 분야 디지털화 적극 추진)
- 국가개발전략(2018~2036) 일환으로 '교통 시스템 개발 전략(ITS 마스터플랜)' 추진 예정
 - * 1단계(3년)는 교통 정보 수집, 2단계(5년)는 방곡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통합 ITS 시스템 구축, 마지막 3단계로 10년간 태국 전역에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 태국은 '23년 의료관광 시장의 9% 차지하는 세계 17위 의료 관광국(국제의료표준(JCI 인증) 병원 60개), 정부 육성 방침과 맞물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성장 전망
 - '22년 태국 총 의료비 지출액 208억 달러('28년까지 연평균 7.3% 성장), 고령화로 인한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 및 1인당 의료비 지출액 지속 상승 전망
 - * 태국 1인당 의료비 지출액(USD) : ('20) 381.67 → ('22) 338.65 → (28f) 478.11
- 정부의 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과 태국 내 높은 모바일 활용도에 따라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에듀테크 시장 성장세
 - 태국 에듀테크 시장은 향후 약 300억~400억 바트 수준(9.6억~12.8억 달러)으로 성장 전망되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24년 약 2.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태국 성인들의 재교육 및 자기 계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는 업스킬(Upskill)과 새로운 스킬을 배우는 리스킬(Reskill) 유행
 - * 에듀테크 플랫폼 '스킬레인(SkillLane)'은 엑셀, 토익, 요리 등 다양한 업스킬링 강좌 제공
 - 교육 기관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학습 관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도 수요 증가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국 디지털 전환 기조에 따른 지능형 교통 관련 시스템(ITS) 및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기기 등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접목 수요 활발

- (유망품목) 각 산업 분야 관련 IT 기술(스마트 교통 및 원격진료 앱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품)
- (진출전략) 현지 파트너사 협업 통한 교통 관련 프로젝트 수요 발굴 및 PoC 진행, 네이버클라우드 협업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IT 솔루션(원격진료 앱 등) 진출 등

〈태국 스마트 교통 및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사례〉

기업명	진출 사례
렉스젠	KOTRA 방콕 무역관의 ‘한-태 스마트시티 데이’ 행사 참가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 발굴 후 태국 교통경찰국(TPD)에 스마트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납품 추진. 조달청 혁신 제품 해외 시범 구매 사업에 선정되어 방콕 시내 12대의 무인 교통 단속장비 교차로 현장 설치 및 연내 교통 위반 단속 수행 예정
네이버클라우드	클라우드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분야에 우리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대·중소 동반 진출 사업 추진 - ('22.8) 셀프 구강검진 앱 등 국내 기업 9개사-바이어 50개사 매칭 지원 - ('22.12) AI 분석 서비스 등 국내 기업 9개사-바이어 39개사 매칭 지원 - ('23.12) 원격진료 앱 등 국내 기업 10개사-바이어 37개사 매칭 지원

• 태국 콘텐츠 및 에듀테크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 중인 유망 시장으로, 현지 교육시장 인프라 선점 및 에듀테크 대중화 기회 포착 필요

- (유망품목) 언어 및 교육 관련 AR·VR 콘텐츠, 교육 플랫폼, 스마트 교육용 제품 등
- (진출전략) 현지 교육 관련 기관(IAFSW 등) 및 플랫폼(AES Thailand) 등 활용 CSR 등 추진, 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샘플 제공 등으로 시장성 확인 후 진출

* IAFSW(태국 국제미래 STEM 교육협회) : STEM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개발 및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협회로 초·중등 STEM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지역학교 지원, 디지털 전문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이 주요 업무이며, KOTRA, 국내 에듀테크 기업과 함께 '22년 태국 교육 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CSR 인재육성캠프, '23.5월 '동남아 서비스 해외 진출 파트너링' 행사 등을 공동 주관. '2024 한-아세안 에듀테크 세미나'에 태국 교육기관 관계자 50여 명 초청 지원. 국내 KOFAC(한국과학창의재단), 비상교육, 웅진씽크빅, 타임교육, 윤선생, 콘센트에듀, 로지브라더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 아시아 교육과 기술 기관·기업들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기관인 AES(Asia Edtech Summit) Global의 태국 지부로, '24.6.10일 설립됨. 중국, 베트남, 일본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37개), 일본(10개), 중국(6개), 베트남(7개) 교육 관련 기업, 대학, 기관 등이 참여 중

〈태국 에듀테크 시장 진출 사례〉

기업명	진출 사례
메가스터디	- 2019년 태국에 합작법인인 메가에듀테크를 설립 후 한국과 동일한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강의를 제공 - 태국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전 과목 강좌를 운영 중 - '22년 7월 오프라인 학원(SiamScape)을 개설했으며, '22년 9월 태국 대학교 입학시험인 TGAT 강좌 전 시간 마감율 달성하며 인기몰이 중
비상교육	- 2020년에 태국 한국교육원과 계약을 맺고, 한국어 원격 스마트 러닝 솔루션 '온 클래스'(On KLaSS) 제공 - 온 클래스 콘텐츠는 태국의 한국어 교과서를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실시간 원격 수업이 가능한 줌(Zoom), 웹엑스(Webex) 등 화상 시스템을 결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수업 가능 - 이외에도 영어교육 프로그램인 챌린지, 엘리프가 공교육 시장에 진출
매스프레소	- 2021년 태국 시장에 진출. 매스프레소는 모르는 문제를 찍으면 5초 안에 풀이를 보여주고, 질문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 맞춤 동영상 풀이 등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교육 플랫폼 '판다'를 운영 중 - 태국에서 출시한 판다는 출시 일주일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교육 카테고리 1위에 오르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음
타임교육C&P	- 타임교육C&P는 비즈니스 상담회 등 현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교육기관 대상 샘플 제공으로 먼저 시장성 확인 후 수출 추진 중 - 태국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팩토 Toy 사이언스'는 48가지 실험을 포함한 과학교구로 태국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

3-3. 탄소중립, 친환경 미래차 이슈 관련 신시장 기회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태국의 BCG(Bio-Circular-Green) 경제 모델을 국가 의제로 채택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 차량(EV) 생산 확대 등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산업 정책 추진 중
- ※ 태국은 연 400만 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아세안 최대 자동차 클러스터로 '23년 기준 총 25개 완성차 제조업체 및 2,355개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및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망 미래차 생산 허브로 급부상 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탄소중립)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무조건적 목표)를 30%로 설정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6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계획**
 - 태국 정부는 △에너지 및 운송 △산업 공정 및 제품 사용 △폐기물 △농업 4가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
 - 에너지 자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37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재생에너지로 확대하고자 하며, 에너지 집약도(EI)를 30% 감소하고자 함
 - * 2022년 태국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1,522천toe로 전년 대비 29.2% 증가, 1차 에너지 공급량 중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17.1% 차지
 - * 발전용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 : 30%('30년) → 50%('40년)
 - * 태양 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 3GW('22) → 10GW('30) → 25GW('50)
 - * 2023년 전력 개발 계획(PDP 2023-2037)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포함, 2037년까지 2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여 총 800MW의 전력 생산 목표
- **(친환경 미래차) 태국 정부,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 목표로 미래차 집중 육성책 실시**
 - 태국 국가전기차정책위원회(NEVPC),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 30% 확대 발표(30@30 목표), '24~'27년 EV3.5 전기차 보조금 정책 도입('23.11월)
- **2024년 태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11.03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5.06% 성장하여 2028년까지 시장 규모 13.44억 달러 달성 예상**
 - 태국은 '23년부터 배터리 전기차(BEV)를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24년 1분기 배터리 전기차 생산 대수는 2,647대를 기록, '23년 164대 대비 비약적으로 증가
 - 총 25개 완성차 제조업체 중 배터리 전기차 제조업체는 11개사(중국 업체 6개사)로 '24년부터 본격 양산 예정이며, '23년 기준 신규 등록된 전기차량은 196,991대로 전체 등록 차량의 24%를 차지
 - * 중국 : Hozon(20만 대 규모), BYD(15만 대 규모), 장안(10만~20만 대 규모), SAIC(10만 대 규모), GWM(8만 대 규모), AION(5만 대 규모)
 - * 태국 : Horizon Plus(대만 폭스콘-泰 석유공사 자회사 합작법인), 태국 춘부리 공장 '25년 1분기 개장 및 5만 대 생산 목표
 - * 기타 : 벤츠, 기존 내연기관 차량 조립 태국 싸뭇쁘라칸 공장에서 EV 배터리 생산 시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국 전력개발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송배전망 투자 및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전기차의 경우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우리 전기차 부품 및 인프라 기업 역내 공급망 조기 진입 필요

- (유망품목)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및 전기차 주요 부품, 충전 관련 기술 인프라
- (진출전략) 발주처 벤더 등록을 위한 수요 기반 현지 상담회 및 관련 전시회 참석

① (전력 기자재) 국내 건설 및 발전사 전력 기자재 협력사 대상 지원 사례

〈KOTRA 방콕 무역관 사업 추진 사례〉

- (기자재) 삼성엔지니어링 협력사 15개 대상 현지 발주처 벤더 등록 지원('23.3월)
- (기자재) 아시아에너지리더십포럼(SETA) 연계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협업 1차 한-태 Energy Week 개최('23.8), 광주·전남 에너지 기업 11개사 참가, 포럼 연계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진행
- (플랜트) 한국수자원공사 협업 벤더 10개사 대상 환경 플랜트 사절단 추진('23.7월, '24.9월)

② (친환경 미래차) 태국 주요 기업(PTT, 반푸 그룹 등) 소싱 수요 기반 KOTRA 방콕 무역관 주최 GP 상담회 참석, 전기차 기술 전시회(EV ASIA) 등 적극 참가 등

〈KOTRA 방콕 무역관 추진 사업〉

- (수요 기반 상담회) 2024 태국 전기차 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태국 최초 한·태 전기차 협업 사업)
 - 협업 기관 : EVAT(태국전기차협회), BOI(태국 투자청)
 - 분야 : 전기차 부품, 배터리, 충전 및 관련 솔루션 등 현지 바이어 사전 소싱 수요 연관 품목
 - * 소싱 수요 : 태국석유공사 자회사 ARUN PLUS(DCU, 배터리 부품(냉각장치, 부스바), 탑재형 충전기(OBC), 첨단운전자지원 시스템(ADAS) 관련 부품, 인포테인먼트 등 15개) 및 반푸 그룹(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전기차 배터리팩(냉각 부품, 프레임) 등 5개)
 - 참가 규모 : 국내 20개사(현대위아, 만도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등 20개사), 태국 바이어 27개사(대기업 10개사, 유관기관 2개사 등)
 - 프로그램 : 온라인 포럼, B2B 상담회, 공장 시찰 및 MOU 체결식 등
 - 주요 성과 : 상담 건수/상담액 : 104건/USD 1억, MOU/LOI 체결 : 2건, 언론 보도 14건 등
- (전시회) 2024 태국 EV ASIA 전시회 (한국관 최초 참가)
 - 분야 : 전기차 부품 및 장비, 전장품 등
 - 참가 규모 : 국내 7개사
 - 주요 성과 : 상담 건수/상담액 : 74건/USD 30백만

3-4. 경제 한류 최대 수혜주(뷰티, 식품)의 태국 시장점유율 확대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태국은 경제 한류의 동남아 중심국, 특히 한국산 소비재(식품,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 인기 지속
- ※ (식품) 泰 식품 시장 최근 5년간 연평균 5.1%씩 성장, '26년 796억 달러 예상
 - 한국산 라면은 태국 전체 수입 시장의 80% 이상 차지('23)
 - 대상, 태국 유명 브랜드 '타오케노이'를 제치고 현지 시장점유율 1위('23)
 - 한국산 딸기, 포도, 배 등 신선과일 인기. 한국산 포도 수입 증가율 전년 대비 91.6% ↑('23)
- ※ (화장품) 태국 화장품 시장 규모 전년 대비 14.7% 증가('23), 지속 성장 전망
 - 對태국 화장품 수입 대상국 중 2위 : 1위 프랑스, 2위 한국, 3위 일본이며, 1~3위가 전체 수입 시장의 55.5% 차지('23 상반기 기준)
- ※ (생활소비재) 디자인이 뛰어난 아이디어 상품, 펫 용품 등 인기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류 영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한류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국가

- 한류 관련 동호회 123개(1,951만 명)로 전 세계 1위(2023년 기준)
 - * 출처: '23 지구촌 한류현황 분석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24.4.5)
- 태국, K-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1위 국가(2023년 기준)
 - * 출처: '23 K-콘텐츠 해외 진출 현황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24.1.18)
 - * 태국(72.1점), 인도네시아(71.8점), 베트남(70.1점), UAE(67.0점)

〈2024년 한류 영향력이 큰 상위 5개국 실태조사〉

(단위: %)

국가명	문화 콘텐츠 경험률	콘텐츠 경험자 호감도	최근 1년간 한국 관련 제품 구매 경험	전반적 한국 제품 구매 의향
인도네시아	89.3	86.3	97.8	53.0
인도	72.4	86.3	82.8	70.1
태국	88.2	83.0	98.2	65.4
말레이시아	87.3	78.0	97.9	58.8
베트남	89.5	82.9	94.0	72.5

자료: '24 해외 한류실태 조사결과 보고('24.4.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6개국 25,000명 대상

• (경제 규모 및 구매력) 태국은 경제 규모 및 구매력 측면에서 매력적인 시장

-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중 총 GDP 2위, 1인당 GDP 3위에 해당하는 국가

연번	국가명	GDP(백만 USD), 순위('23)	1인당 GDP(USD) ('23)
1	인도네시아	1,371,171 (16위)	4,940.5
2	태국	514,945 (27위)	7,171.8
3	싱가포르	501,428 (30위)	84,734.3
4	베트남	429,717 (34위)	4,346.8
5	말레이시아	399,649 (37위)	11,648.7

자료: 2023 전 세계 GDP 순위, World Bank('24.6월)

- 태국, 방한 외국인 소비액·소비건수 아세안 2위(1위: 싱가포르, 3위: 인도네시아)

* 출처: BC카드 '외국인 관광객 소비 패턴 분석 자료'('23.10.25)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식품) 직·간접적 경험 소비를 자극하는 고객 체험형 마케팅 추진

- 제품을 경험한 소비자는 단순히 브랜드를 택하는(Buy) 것이 아니라 그 경험마저 상품에 녹아들여(Buy-in) 재구매율을 촉진 (이장우, 글로벌 브랜드 마케팅 전문가 칼럼 中)

- (사례 1) '23.11월 태국 대표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고메마켓'은 프리미엄 제품을 소개하는 'Gourmet Tastiva'를 개최, **한국산 '마이 하트 포도(My Heart Grape)'**를 선보여 큰 인기를 끌었음. 마이 하트 포도는 과실이 하트 모양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외견과 아삭아삭한 과육, 높은 당도, 달콤한 향으로 좋은 반응을 얻음. Facebook 사용자 수 세계 8위(5,450만 명, '22년 기준)인 태국에서 마이 하트 포도는 **"마이 하트 포도와 사랑에 빠졌어요"**라는 **인증샷**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었음
- (사례 2) '24.2.14일 발렌타인 데이'에 맞춰 논산시에서는 태국 방콕 시암광장에서 **논산 딸기 축제**를 개최, **3일간 35만 명이**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음. 발렌타인 데이 = 빨간색 = 딸기라는 공통점이 공감을 일으켜 현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

• (화장품) 바이어가 선호하는 한국 뷰티 제품에 대한 USP(Unique Selling Point) 적극 공략

- 한국산 화장품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에 진출, 다수의 제품이 경쟁 치열.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제품은 패키징이 잘 되어 있고, 효과가 뛰어난 프리미엄 이미지로 인식되어 당분간 화장품 선호에 대한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사례) Biodance라는 '슬리핑 마스크팩'이 고가임에도 최근 태국에서 인기. 초기 단계에서는 태국 인플루언서가 본인 SNS 계정에 동 팩을 소개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함. 태국에서 상당히 고가(1상자(3팩)에 1,200바트, 1개에 약 15,000원) 제품임에도, 자는 동안 붙이고 있다가(3~4시간 정도) 일어났을 때 확실한 보습 효과를 보았다는 후기가 SNS상에 이어지면서 인기 제품이 됨. 일반적인 마스크팩은 태국 시장에서 레드오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해당 제품은 인플루언서의 초기 마케팅 효과와 확실한 효과에 대한 리뷰가 인기몰이에 일조함

- 다만, 확실히 바이어 및 소비자를 사로잡을 만한 USP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보통은 한국에서 판매가 잘되는 제품을 바이어들도 선호하는 편으로, 한국에서 인기 제품이라는 증거가 필요

[2023 방콕 우수한국상품전 설문 조사]

- **(화장품)** 소비자들은 구매 시 “디자인”을 중시하며, 주요 구매 채널은 “오프라인 화장품 전문숍/생활용품 전문숍”이며, 기능 중 “보습”을 중시하고, 한국 화장품 제품은 “디자인”이 뛰어나다고 평가(태국 바이어/일반소비자 145명 대상, '23.3월 설문 시행)

- **(생활소비재, 패션, 잡화) O2O 마케팅 공략. Online으로 시장성 파악, Offline으로 채널 확장 ⇒ 모바일 퍼스트 국가인 태국은 ‘디토(Ditto) 소비’를 활용하기에 최적**

* 디토 소비 : 라틴어 어원으로 ‘나도’라는 뜻. 구매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유통 채널 등을 추종하여 소비하는 행위

<디토 소비를 O2O로 활용한 성공 사례 : 칼린백>

한국의 중소 가방 브랜드인 칼린社의 대표 제품인 코지백(일명 구름백)을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메고 SNS에 게재한 이후, 태국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 시암 백화점에 팝업 매장으로 입점, ('23.2월) 매장 오픈 전 날 태국인 1,000여 명이 밤새 오픈 런을 이뤘고, 매장 오픈 첫날 완판됨. 이후 현지에서는 해당 백을 구하기 어려워 한동안 리셀가로 3배 이상 판매됨

- **식품·화장품 관련 태국 주요 전시회 참가를 통한 신속한 시장 진출 도모**

- 태국 주요 전시회는 동남아시아 인근국 바이어뿐만 아니라 서남아시아 바이어도 참가하는 국제적 전시회로 태국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인근지 시장까지 공략 가능

주요 전시회	일시(잠정)	비고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THAIFEX-ANUGA ASIA)	'25.5.27~5.31	IMPACT 전시관
태국 방콕 아세안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COSMOPROF CBE ASEAN)	'25.6.25~27	QSNCC 전시관
태국 커피, 티 음료 박람회 (THAILAND COFFEE, TEA & DRINKS)	'25년(시기 미정)	BITEC 전시관
태국 코스맥스 전시회 (COSMEX-Thailand)	'25.11월	BITEC 전시관

품목명 1		
반려동물 제품	선정사유	- 최근 4~5년 사이 태국에서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트렌드와 함께 반려동물을 보유하는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2년 태국 전체 가구 중 개와 고양이를 소유한 비율이 약 37% 2023년 태국 마히돌 경영대학(CMMU)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49%가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선호한다'라고 응답했으며 반려동물의 양육비로 연평균 1만 4,200바트(한화 약 54만 원)를 소비
	시장동향	2023년 태국 펫푸드 시장 규모(개, 고양이 사료)는 약 489억 바트(약 1조 8,300억 원)로 전년 대비 11% 증가 - 마켓리서치 기관인 Mordor Intelligence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펫푸드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33억 5천만 달러(약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경쟁동향	- 프리미엄 브랜드로 분류되는 로얄 캐닌(Royal Canin) 제품은 일반 사료보다 50% 더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대하고 있음. 2022년 30억 바트(한화 약 1,130억 원) 이상의 매출로 성장 - 태국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전체 점유율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 최대 수입국은 한국으로 약 28%를 차지. 이 외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이 주요 수입국 - 태국의 한국산 펫푸드 수입은 중국(40.3%)과 한국(28.3%)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산 펫푸드 수입의 경우 '23년 기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진출방안	-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태국 펫푸드 제품은 점차 프리미엄화·맞춤화(반려동물의 영양 상태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 체중 조절용 맞춤 사료 등)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 - 이러한 소비 트렌드로 인해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영양이 풍부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고품질의 한국산 펫푸드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음 - 제품만의 차별화된 특징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며, 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펫 박람회나 행사에 참가해 최신 현지 트렌드와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는 등 현지 시장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품목명 2		
의약품	선정사유	- 아세안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의약품에 대한 수요 확대 지속 전망 - 보편적 의료보장(UCS), 의료관광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 및 기술 도입, 의약품 유통 및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의약품 시장 성장 촉진 노력
	시장동향	2022년 태국 의약품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13.67% 증가한 20.2억 달러 기록(HS 3004 기준), 한국으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은 전년 대비 0.84% 증가한 4,530만 달러 - 복제 의약품 사용 비중이 높은 시장구조(49%)
	경쟁동향	태국은 제약 기술 및 원료의약품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독일, 미국, 벨기에 등이 주요 수입국으로, 특히 고부가가치 의약품의 수입이 높은 비중
	진출방안	- 태국 내 주요 관련 전시회 지속 참가 통한 브랜드 노출로 제품 인지도 제고 필요 - 의료 관련 학회, 의사 대상 세미나 개최 및 후원 등을 통한 고객 확보 - 태국 FDA 인증 절차 진행 전 수입상 또는 인증 대행업체를 통한 필요 서류 사전 확인 필요

품목명 3		
의료기기	선정사유	- 저출생·고령화 사회로 우수한 헬스케어 서비스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확대 지속 전망 - 태국을 아세안 의료 허브 국가로 육성하려는 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엔데믹 이후 태국 의료관광 재활성화 기대
	시장동향	태국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72억 달러('22년)로 팬데믹 이후 국내 생산(78억 달러) 및 수출(33억 달러)이 각각 35%, 39% 감소(자료: MEDIU)
	경쟁동향	수입 규모는 8.35억 달러이며, '23년 한국의 對태국 수출은 2,200만 달러로 소폭 증가(+0.49%)했고, 미국, 중국, 일본 수입액이 전체의 47% 차지(HS 9018 기준)
	진출방안	- 파이타이 그룹 등 현지 영리 병원 또는 대형 벤더와 협업 관계 구축 - Medlab Asia, Medical Fair Thailand 등 관련 전시회 참가 통한 트렌드 파악 및 관심 바이어 발굴
품목명 4		
전기차 부품	선정사유	-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태국 생산 차량의 3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전기차 로드맵(30@30)' 발표 - 전기차 생산 목표(천 대) : ('25)225→('30)725→('35)1,350 - 태국 정부의 전기차 육성 정책에 따른 기존 글로벌 브랜드들의 공급망 재편 및 신규 로컬 브랜드 등장으로 시장 확대 중
	시장동향	-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등 전기차 관련 분야에 대한 태국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신규 기업 진입 및 투자 활발 * BYD, MG, GWM, NETA 등 전기차 브랜드가 태국에 생산시설 투자
	경쟁동향	'23년 기준, 태국 BEV 수입액은 31억 9,391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1% 급증,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92.9%로 압도적인 1위 차지 * 독일(4.9%), 일본(0.6%), 인도네시아(0.5%) 순 - 전기차 부품의 경우 중국은 배터리 부문, 일본은 모터 및 구동 시스템 등에서 강세를 보임
	진출방안	- 전기차 관련 B2B 상담회 및 전기차·신재생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인지도 확대 - 신규 로컬 생산 예정 기업(Horizon Plus, 반푸 그룹 등)의 Tier 1 그룹 파악 후 PoC(실증 테스트) 참여
품목명 5		
전기차 충전기 및 관련 부품	선정사유	태국 정부, '아세안 전기차 생산 허브' 목표로 미래차 집중 육성책 실시, 시장 초기 단계로 우리 전기차 부품 및 인프라 기업 역내 공급망 조기 진입 필요
	시장동향	'23년 기준 태국에는 2,658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며 충전기 대수는 약 9,694대로 집계됨 - 정부는 '25년까지 주요 도시 전역에 공공 급속 충전기 1만 2천 대 설치를 목표로 함
	경쟁동향	'23년 기준 태국 전기차 충전기 주요 브랜드는 설치장소 기준 PTTOR사의 EV Station Plus(705), Energy Mahanakhon사의 EA Anywhere(538), PEA사의 PEA Volta(339), Sharge Management사의 ReverSharger(323) 등으로 모두 태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음
	진출방안	전기차 관련 B2B 상담회 및 관련 후방산업 전시회 지속 참가를 통한 인지도 확대

품목명 6		
인쇄회로기판	선정사유	•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전자 제품과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데, 특히 최근 성장하는 전기차와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고성능성 PCB 수요 증가 •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관세 혜택과 가격 경쟁력 확보
	시장동향	• 2022년 태국 인쇄회로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19.8억 달러 기록(HS 853400), 한국으로부터의 인쇄회로기판 수입은 전년 대비 58.41% 증가한 2.53억 달러 •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AI 가속화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향 對태국 수출 유망
	경쟁동향	• 대규모 생산능력과 저렴한 가격을 바탕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약 53%)하는 가운데, 대만은 다층 및 고속/고주파 PCB 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 5G 장비 등 고급 전자기기 시장에서 주요 공급자로 자리매김 • 한국은 기술 집약적인 제품과 맞춤형 PCB 솔루션 제공에 강점을 보이며, 특히 전기차 산업에 활발하게 진출했으며, 일본은 신뢰성과 내구성이 높은 PCB 제품으로 자동차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우위
	진출방안	• 현지 주요 전자 제품 OEM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품 공급망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수출 루트 확보 • 고사양 제품을 필요로 하는 태국의 자동차 및 전자기기 제조사와 협력하거나, R&D(연구개발) 기반으로 맞춤형 PCB·솔루션 제공 • 한-아세안 FTA의 관세 혜택을 활용하고, RoHS(유해물질제한지침) 같은 규제 요건에 유의
품목명 7		
화장품	선정사유	• 한국 화장품은 한류 콘텐츠를 통해 태국 소비자들에게 피부를 매끄럽고 더 좋게 만들어주며,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로 인식. 태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증가로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태국 화장품 시장 '24년까지 연평균 7% 성장하며, 시장 규모는 7억 8,000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태국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제품 수입 시장 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한국 제품 수입은 전년 대비 43.3%(1억 달러) 증가('23년 기준)
	경쟁동향	• 한국은 태국의 주요 화장품 수입국 2위로 시장점유율 19% 차지 • 수입 주요 3국(프랑스, 한국, 일본)이 태국 화장품 수입액의 53%를 차지
	진출방안	• 태국 시장 맞춤형 적격 국내 기업 및 상품 발굴로 조기 성과 창출 : 태국 바이어 관심도 높은 올리브영,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매출 상위 기업 및 상품 발굴 → 집중 마케팅 지원으로 조기 수출 성과 창출 • (초저가 시장) 초소형 리패키징 제조 유도 통해 주요 유통망(세븐일레븐 등) 공략 : 태국 내 초저가 패키징 제품 유통의 대부분은 세븐일레븐이 장악(전국 13,000개 매장). 화장품 전문 벤더(D사), 對세븐일레븐 화장품 납품 물량 대부분을 KOTRA 방콕 무역관 공동 물류 이용 • (셀럽 브랜드) SNS 셀럽 리뷰 → O2O 판매량의 절대적인 역할, B2C 위주의 품목에 인플루언서 적극 활용(SNS 리뷰 → 판촉전 참여 등)

품목명 8		
잡화	선정사유	- 태국의 가방 수입은 전년 대비 16% 증가(10억 달러)하였고, 한국산 가방 수입은 전년 대비 12% 증가(1,300만 달러) - 한류 수혜 품목 중 패션은 현지 트렌드와 체형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성상 수출이 쉽지 않았음. 또한 서구 기업들이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탓에 한국 기업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음 - 코로나 이후 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 관광산업 활성화, 한류가 성숙됨에 따라 동남아 중 아세안의 무역, 관광업, 쇼핑의 중심지인 태국으로 한국 패션 기업들의 진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음 *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쇼피(Shopee) 태국, 베트남에서는 '22년 K-패션 성장률이 '21년 대비 각각 10배,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 - 또한 국내 유통업체(백화점)가 포화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대·중소 동반 진출 형태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함에 따라 국내 신진 패션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시장동향	'22년 태국의 K-패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shopee 발표) - 코로나 이후 태국 소비자들의 구매력 향상, 관광산업 활성화, 한류가 성숙됨에 따라 동남아 중 아세안의 무역, 관광업, 쇼핑의 중심지인 태국으로 관심 집중
	경쟁동향	- 태국 내 소프트 파워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는 한국으로, 문화, 패션·라이프, 드라마·영화 부문에서 모두 한국이 1위를 차지 (출처: '22 지구촌 한류현황 분석보고서, 한국국제교류재단, 태국 마히돌대학교('22)) - 태국은 제조업이 발달하여 현지 의류 관련 제조사 또는 중국산이 저렴하므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한국산 제품의 수입 가격과 경쟁이 불가하여 다른 판매 포인트를 모색해야 함
	진출방안	- 태국 소셜 미디어 마케팅 업체 Influencer House에 따르면, 74%의 태국 브랜드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차용 - 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SNS는 Facebook으로 전 세계 이용자 순위 8위('21년 기준 5,800만 명) - 태국은 '디토 소비(디토(Ditto)는 '나도'라는 라틴어로, 디토 소비란 유명인을 따라 소비하는 행태를 뜻함)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온라인·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적극 활용
품목명 9		
라면	선정사유	'17~'23년간 한국산 라면은 태국 라면 수입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 특히 매운맛을 좋아하는 태국 사람들에게는 '불닭볶음면'이 인기
	시장동향	- 태국의 라면 수입 시장은 '22~'24년간 연평균 2~3% 꾸준히 증가해옴. '24년 태국 라면 시장 규모는 약 7,965억 원(Krungsri Research) - 태국 소비자의 라면 총 소비량은 약 38억 명의 분량으로 전 세계 9위 시장.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55개로 세계 3위('23년 기준, 세계라면협회)
	경쟁동향	- 태국 라면 시장은 현지 제조업체 사이에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함. 태국 내 라면 브랜드별 비중은 마마(MAMA)가 48%로 가장 높고, 와이와이(WAIWAI)가 24%, 얀얌(YUMYUM)이 15%, 나머지 브랜드들이 13% 순 - 태국 라면 포장 유형별 소비 점유율은 봉지라면이 73%, 컵라면이 27%
	진출방안	- 한국 라면은 기존 태국 라면보다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판매(약 40~50바트, 약 1,500~1870원 / 태국 현지 제조 라면은 약 7~15바트) - 태국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예능을 보며 한국 라면을 즐기거나, 기존 태국 라면과 다른 맛의 라면을 맛보고 싶을 때 한국 제품을 선택 - 태국의 '24년 식품 트렌드는 '레드'(매운맛), '건강 식품', '솔로 다이닝'으로, 자극적이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태국인 입맛에 맞고, 패키징이 뛰어난 신제품으로 태국 시장을 공략한다면 좋은 반응을 기대

품목명 10	
해조류 가공식품	선정사유 • 태국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 탄수화물 및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이 밀가루 면 외에 다양한 대체 소재 면을 찾고 있고 두부면, 두유면 등과 함께 미역면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급부상 • 특히, 인플루언서, 틱토커들이 미역면을 건강식으로 먹는 영상을 유행처럼 업로드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미역면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확산
	시장동향 • WAIWAI 인스턴트 라면을 생산하는 Thai Preserved Food Factory사는 향후 몇 년 동안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성 및 프리미엄 식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사의 부사장인 비라 나파프루엑차트(Veera Napapruekchart)는 '24년부터 기능성 식품과 프리미엄 식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함. 이는 저콜레스테롤, 저당, 글루텐 프리 제품 및 노인 맞춤형 품목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또한, 식물 기반 제품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경쟁동향 • 태국에서는 '켈프 누들(Kelp Noodle)'이 건강식 면으로서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음. 한국어로는 '천사채'로 표기되는데 투명한 젤리 같은 식감의 면임 • 인스턴트 켈프 누들을 제조하는 주요 태국 기업은 ThaiSeaweed, Oceanic, Wah Nam Hong 등임. 3개 기업 모두 천사채 외에 다양한 해조류 제품 제조
	진출방안 • 태국의 '24년 식품 트렌드는 '레드'(매운맛), '건강 식품', '솔로 다이닝'으로,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식품 선택에도 영향 • 최근 출시된 한국산 미역면은 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면보다 가격이 3~4배 더 비싸지만, 일반적으로 미역이나 해조류 함량이 높은 편 •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태국 유통사에 이런 특이점을 어필한다면, 바이어 및 소비자 시선과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품목명 1		
디지털 헬스케어 (웰니스)	선정사유	- 태국 정부는 2028년까지 푸켓을 세계적인 의료관광 허브로 개발 예정 - 태국의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및 웰니스 수요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태국의 건강 및 웰니스 코칭 시장은 2024년에 1억 8,390만 달러에 이르며, 2024~2028년 연평균 성장률은 8.81%로 추정 - 피트니스, 명상 등 관련 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4년에는 태국 전체 인구의 15.74%가 건강 및 웰니스 코칭 시장에 참가할 것으로 예측됨
	경쟁동향	바치라 푸켓 병원 등 여러 중·대형 병원에서 병원과 웰니스 케어를 병행할 수 있는 다목적 메디컬 플라자(의료단지) 건설
	진출방안	- 진단과 더불어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 선호 - 의료기기는 종류에 따라 식약청 인허가 혹은 증명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출에 앞서 현지 파트너와 확인 필요
품목명 2		
에듀테크 (교육 플랫폼)	선정사유	- 태국 정부는 태국 중·장기 경제 발전 로드맵 '태국 4.0(Thailand 4.0)'에 '교육'을 포함, 인적자원 개발 투자를 적극 지원 - 높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득 중·하위 계층의 수요 확대
	시장동향	2024년 기준 온라인 학습 플랫폼 시장의 수익은 약 2억 2,7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학습 사용자 비율은 7.4%에 달함 - 영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 학습이나 프로그래밍, 코딩 등 특정 산업에 맞춰 전문 강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경쟁동향	미국, 유럽 등 서양권 기업이 강세이나, 한국어 열풍과 더불어 비상교육, 타임교육 등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화 전략 수립 필요) 기존 온라인 학습 플랫폼 외에도 태국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현지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 교사, 학생 등 대다수의 플랫폼 이용자는 영어가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어 작업 및 현지 선호를 반영한 현지화 중요
품목명 3		
S/W	선정사유	- 태국 4.0 정책 추진 등으로 S/W 수요 확대, 태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기업 적극 지원 - 외국산 의존도가 높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많으나 태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해 보안 솔루션 등 유망
	시장동향	태국 디지털경제진흥원(Depa)에 따르면 '24년 S/W 시장은 약 2,150억 바트(한화 약 8조 6천억 원)이며,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과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이 원인
	경쟁동향	독일, 미국, 일본 등 글로벌 S/W 업체가 시장 선두
	진출방안	-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보안 솔루션 산업의 현지화 전략 - 태국 소비자들은 기술적으로 사용이 편하고 소비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를 선호하기 때문에, 복잡한 다기능 소프트웨어보다는 핵심 기술을 부각하는 것이 중요

품목명 4		
프랜차이즈	선정사유	•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식, 한국 화장품 등 한국 브랜드 수요 증가
	시장동향	• 한국 프랜차이즈 진출 증가('24년 bhc 치킨, 푸라닭, 아모레퍼시픽 헤라 신규 진출, 고피자 태국 내 매장 추가 개장) • '24년 기준 프랜차이즈 시장 규모는 약 3천억 바트(한화 약 11조 7천억 원)이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 중 • 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은 기존의 방콕 중심 대형 쇼핑몰을 벗어나 주변 지역의 커뮤니티 몰과 주거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경쟁동향	• Miixue(아이스크림), 하이드라오 등 중국 프랜차이즈들이 빠르게 성장
	진출방안	• (현지 홍보) 태국은 인플루언서 광고의 영향력이 매우 큰 편이며, 특히 초반에 여러 소셜 미디어를 홍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인지도를 쌓고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뷰티	아세안 뷰티 사절단	'25년 상반기
소비재	동남아 진출 무역사절단	'25년 상반기
전기차	전기차(모터쇼 연계) 사절단	3월
종합	종합 무역사절단	5월
투자 진출	기업활동지원협의회	5월
ICT	거브+에듀테크 데이	'25년 상반기
포장용품	태국 방콕 포장용품 전시회	6월
뷰티	충북 지방특화(화장품)사업	6월
식품	Seoul Food in Bangkok 2025	'25년 10월
기계	METALEX(기계전시회)	11월
의료	스마트 의료 진출사업	'25년 하반기
소비재	우수 소비재 태국 O2O 통합 진출 지원사업	'25년 연중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5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 (THAIFEX - Anuga Asia)	2025.5.27~31	장소 : IMPACT
2025 태국 프랜차이즈 전시회 (Thailand Franchise & Business Opportunities)	2025.6.4~7	장소 : BITEC
2025 태국 방콕 아세안 코스모프로프 전시회 (COSMOPROF CBE ASEAN)	2025.6.25~27	장소 : QSNCC
2025 태국 방콕 전기자동차 산업기술 전시회 (Electric Vehicle Asia)	2025.7.2~4	장소 : QSNCC
2025 태국 방콕 보석 전시회 (Bangkok Gems & Jewelry Fair)	2025.9.9~13	장소 : QSNCC
2025 태국 코스맥스 전시회 (COSMEX-Thailand)	2025.11월	장소 : BITEC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세나	차장	방콕 무역관	66-2-035-1531	sena@kotra.or.kr
2	장철순	차장	방콕 무역관	66-2-035-1550	bionda8721@kotra.or.kr
3	박슬기	차장	방콕 무역관	66-2-035-1545	seulgi_park@kotra.or.kr
4	김지현	과장	방콕 무역관	66-2-035-1540	kjh3751@kotra.or.kr

2025 태국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